

월간

#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 2001 2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2월호(통권148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드디어 출간

백화점식 문화보다 전문점식 문화라야 산다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네모난 도자기’로 돌파구 찾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진으로 보는 평생의례

‘2001 지역문화의 해’ 탐라도서 닷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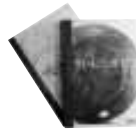
표지 사진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최근 펴낸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전6권).  
(관련기사 40면)

2001년 2월호(제15권 2호 통권 148호) 등록 / 라-3627(199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천리안 / cc001fed(Go CCF)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편집주간 / 柳長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2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 C o n t e n t s

### 차례

4 ◆ 권두칼럼	전통문화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김민한
6 ◆ 특별기고	백화점식 문화보다 전문점식 문화라야 산다	김종호
8 ◆ 우리문화논단	지역문화와 뿌리있는 축제	주강현
10 ◆ 이사람 - 현장서예가 김성장씨	“붓글씨로 지역문화 일군다”	강민철
12 ◆ 오피북	가야인도 성형수술을 했다	편집부
18 ◆ 이달의 문화인물	여류 농촌운동가 최용신	편집부
19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㉔	이창교 문경문화원장 / 김학문 문경시장 인터뷰	강민철
27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청소년·주민 호응 커 ... “이젠 달라져야”	편집부
34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㉑ - ‘분청사기 도판(타일)’ 해외 수출하는 오세양 한국민예(주) 대표	‘네모난 도자기’로 돌파구 찾았습니다	강민철
37 ◆ 세시풍속	설·대보름 민속놀이	박후식
40 ◆ 알림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드디어 출간 CD롬 제작, 인터넷 서비스도 실시	편집부
42 ◆ 추억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진으로 보는 평생의례	과천문화원 · 과천향토사연구회
49 ◆ 2001 지역문화의 해	“2001 지역문화의해” 탐라도서 닷 올려 1백명의 발제자 百家爭鳴식 의견 내놓아	편집부
56 ◆ 문화정보	민원으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편집부
63 ◆ 문화원 소식		편집부
69 ◆ 신간안내		편집부
73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대상 논문	峨嵋山에서의 古代史의 諸問題 ㉑	김민수



# 전통문화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 수없는 외침으로 시달려 온 수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계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 온 요소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위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의 문화적 동화력이요, 다른 하나는 북방 민족과 왜인(倭人)의 군사적 정복력이었다. 중국의 문화적 동화력은 수 천년간 중원(中原)을 정복한 모든 이민족을 중국인으로 만들어 버린 위력을 가진 것이었다. 만주족·거란족·몽고족·티베트족·위그르족 등이 한때 당당한 제국을 건설하였으면서도 궁극에 가서는 중국에 동화되어 버리고 오늘날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가 열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도 중국에 끝내 동화되지 않고 독립된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라고 자부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중국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편 북방 민족과 왜인의 군사적 정복력은 중국인의 문화적 동화력에 못지 않은 위협을 가하여 왔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전란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전란에 시달려 온 민족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는 우리보다 뒤떨어져서 항상 우리 문화를 수입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에는 한반도 이민족의 정복 왕조가 세워진 일이 없으며, 문화적으로는 항상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사는 문화력과 군사력의 틈새에서 위협을 극복해 온 역사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화 능력에서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 그리고 생존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김인한  
안동문화원장

우리는 정체성 있는 우리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유교문화와 불교문화가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보다 받아들여 수용하면서 우리 전통의 고유문화와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해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기도 하지만 정보화시대이기도 하며 세계화시대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가 겪고 살아온 시대와는 아주 판이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문화력과 신지식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경제력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듯이 문화의 시대에 다국적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가간의 국경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파를 타고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문화는 외국의 다국적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정체성 있는 우리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유교문화와 불교문화가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보다 받아들여 수용하면서 우리 전통의 고유문화와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해내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래서 밀려드는 선진 외국의 문화를 범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우리것으로 재창출해내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로 탄생시켜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선(仙)에서 출발하여 불(佛)로 이행하고, 불에서 다시 유(儒)로 진화하면서 오늘의 현대 문화는 과학으로 대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 지배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불과 선이 소멸된 것이 아니듯이, 현대 문화 속

에서도 과학을 상위로 하여 유·불·선이 혼재되어 있다. 밖으로부터 수용된 선진적 지식 체계가 가진 무서운 동화력이 자아 상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며, 여기에서 비록 후진적 낙후성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이다. 지역문화는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향토문화이다. 그런데 이같은 지역문화가 중앙문화에 밀려 빛을 발할 기회가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화의 세기를 맞는 21세기 원년인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니 우리 고유의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지방문화원들은 6·25이후 전국토가 폐허로 변한 아픔을 딛고 지역문화 복구차원에서 향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문화의 시대를 우리문화의 시대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 조상이 국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 부단한 자기 혁신과 자아 발전의 조화를 추구해 온 문화 능력에 있다고 할 때 우리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는 전통 문화를 끄집어내어 오늘의 시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슬기로운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백화점식 문화보다 전문점식 문화라야 산다

**이** 권택감독의 영화 '춘향뎐'이 지난 연말 미국 뉴욕의 링컨 플라자극장과 퀴드극장에서 개봉돼 현지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오는 2월말에는 미국 전역의 120여개 극장에서 확대 개봉할 예정인 '춘향뎐'을 두고 뉴욕 타임스는 "젊은 연인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육체의 신선함에 흠뻑 취하는 모습이 압권"이라고 평했는가 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2000년의 가장 뛰어난 영화중에 하나로 꼽으며 "줄거리의 통렬한 풍자와 구성진 판소리는 할리우드영화의 어떤 스펙터클한 장면보다 스틸이 넘친다"고 극찬했다는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춘향뎐'을 한국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유하기까지 하며, "전통의 판소리를 유쾌하게 재창조한 웅장한 로맨틱 서사시"로 평가했고, AP통신은 "한국의 민속과 전통건축과 수려한 자연에 경의를 표하게 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프랑스 칸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던 '춘향뎐'은 이에 따라 오는 2월말에는 미국 전역의 120여개 극장으로 확대 개봉할 예정이며,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영화제 외국어영화상 수상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을 소재로 만든 판소리 영화 '춘향뎐'이 미국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영화는 물론 한국문화 전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지향해야 할 점들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보인다. 명창 조상현씨의 목소리로 '춘향뎐'의 전편에 흐르는 판소리는 한국 고유의 예술장르로 외국인에게는 생소하게 마련이지만, 빼어난 영상미와 결합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배경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임권택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함께, 스크린 퀴트(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제도 유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영화에는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논리의 예외를 인정해 한국영화 육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저예산 독립영화의 활성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화계에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 한국 영화인구의 저변이 크게



김 종 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넓어졌다는 사실, 한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인류 보편의 정서나 문화와 성공적으로 접목한 영화라는 사실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영화를 꽃피우기 위한 직간접적 제도와 사회적 풍토, 영화계 인사들의 창의력과 정부의 지원 등이 부족하나마 그런대로 뒷받침됐기 때문에 '춘향뎌' 말고도 최근 몇년동안 한국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의 예술이나 문화가 육성되려면 정부와 문화계가 총체적인 뒷받침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춘향뎌'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만들고, 문화국가로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높고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넘어야 할 그 벽중에 하나가 너도 하나까 나도 따라한다는 식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 선택과 집중지원의 원리에 따라 전문점식으로 특화시킨 문화를 육성하지 않고 종합백화점식으로 늘어놓으려고 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한 시점에서 이런 행태는 특히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불꽃놀이 등으로 전야제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천편일률로 사물놀이패를 동원한 길놀이로 시작한다. 지역 특성과 무관한 음식시장이 열리는 것도 판에 박은 듯하고, 미인선발대회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자가 얼마나 나든지 우선 생색을 내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중앙의 얼치기 전문가들을 초빙해 여는 그런 축제가 어떻게 주민이 진정한 주인인 행사로 펼쳐질 수 있으며, 축제의 기본 요소인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겠는가.

지난해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이 방한해 지적한 대로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고유 문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 육성의 자

세가 절실한 것이다. 기 소르망은 독일의 경우에는 기술력과 튼튼함, 프랑스는 패션 대국, 미국은 품질의 우수성과 철저한 서비스, 일본은 미적 감각과 정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그 이미지는 허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부가가치를 세계에서 한껏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훌륭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나름의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 독특한 문화 이미지를 구축해야 작은 지역의 문화일지라도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례는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앙굴렘의 만화축제를 비롯해 문화 선진국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중에 하나인 사머니즘을 미신으로 치부해 철저히 파괴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적 요소로 오히려 키워내는 등의 인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춘향뎌'에 젊은 주인공 여배우의 나체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예술성의 잣대와 별도로 외설성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후진적 문화풍토, 국적불명의 잡탕문화에 밀려 정체성을 잃어가는 전통문화의 위기,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베끼는 일이 흔한 문화적 독창성과 기획력의 빈곤,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화적 역량의 축적은 소홀히 한 채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만 기대하는 한탕주의식 사고방식의 만연 등으로는 지역문화도 나라 전체의 문화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

기왕에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했으니까, 온갖 것을 늘어놓는 종합백화점식 문화보다 전문점식 문화를 지향하고 키워내는 일만이라도 하기를 제안한다. 그것이야말로 각 지역의 문화도 살리고, 문화 국가의 이미지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2001년은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 도대체 지역문화란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되어야 할까. 축제를 예로 살펴보면 도저히 축제라 할 수 없는 기획성 이벤트만이 난무하고 있다. OO아가씨선발대회, 백일장, 경품뽑기 따위의 천편일률적인 행사를 펼쳐놓고 지자체는 자신들의 축제답시고 홍보에 열중한다. 많은 돈이 탕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단체 조차 거의 없는 지경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강릉단오제같이 역사적인 축제를 수백년간 이어오는 곳도 있으며, 함평 나비축제같이 새로운 축제지만 전혀 마인드를 바꾸어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성공사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축제들이 국적불명, 역사불명의 조잡한 이벤트성 축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단위에서 이어져온 무형문화의 토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결과다. 문화적 전통의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지속적인 지역문화의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역축제는란 무엇일까.

2

경남 창녕군 영산읍의 모범사례를 살펴보자. 민족해방의 봉화를 치켜든 3.1절 주간. 영산사람들은 어김없이 싸움판을 벌인다. 작은 읍내는 온통 축제도가니로 빠져들어 골목마다 부산하게 오가는 인파들로 매워진다. 3.1절을 이처럼 거족적으로 거행하는 곳이 또 있던가. 왜병이 그토록 겁냈다는 홍의장군의 주무대이자, 기미년 3월 13일 남쪽에서 가장

빨리 3.1운동의 깃발이 올랐던 영산읍을 안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읍내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25호, 26호)가 2개나 나왔다. 그 하나는 나무로 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 승패를 가르는 쇠머리대기로 우전(牛戰), 목우전, 나무쇠싸움 등으로 호칭된다. 다른 하나는 성안팎을 동서편으로 갈라서 싸우는 영산줄다리기다. 또한 영산에는 단오때 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호장(文戶長)굿이 이루어져 가히 '놀이문화의 메카'로 선언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큰행사가 완전히 민간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영산사람들의 조직력은 대단하다. 짜임새 있는 놀이체계와 일상분란한 진행은 어느 판에서도 맛보기 어렵다. 무형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삶의 장치임을 영산읍내는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다. 굳이 먼 외국의 사례를 들것도 없이 이웃 일본에서 지역단위 축제인 마쓰리를 연년이 이어오는 모범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러나 과연 이같은 방식으로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될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줄다리기만해도 과거에는 수천,수만개 마을에서 행해졌던 보편적인 무형문화였지만 거의 사라졌다. 금년 대보름에도 전라도 부안 김چه 고창 등의 일부 줄다리가 남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줄다리가 벌어질 것이다. 짚을 꼬아서 암줄과 숫줄로 나누어 대동적으로 펼치는 이 뛰어난 무형문화는 정부는 커녕 지자체의 주목도 받지못한채 급격히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바로 우리시대에 중요한 무형문화재들이 소멸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 지역문화와 뿌리있는 축제

주강현 | 문화재전문위원 · 사단법인 '우리민속문화연구소' 소장

‘지역문화의 해’에 무형문화의 지역적 정체성을 분명히 따져보지않고 또한차례 일과성 행사로 일년을 보낸다면, 그런 기념해는 또 한번의 낭비성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 3

시계바늘을 조금 돌려서 전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과연 당시의 문화는 거개가 지역문화였음을 실감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통문화의 실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권에 토대를 두었다. 남사당패나 사당패·숫대쟁이패 등 유랑예인집단이 각지를 떠돌며 연행을 팔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상부문화구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한 문화는 지역적 현실과 처지에 부합되게끔 변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지역전통문화라는 개념은 약화·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바로 지역문화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문화생산력이 극도로 약화된 탓이다.


사회의 제 영역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한, 문화라고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대중매체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일괄 “공급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르게 뾰족한 대안 없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만을 부르짖는다고 일거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문화의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게 살아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개념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역 자생의 문화를 찾는 노력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문화이다”는 주장이 가능하듯이 “가장 지역적인 문화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통문화들의 거개가 지역적 삶에 토대를 두

고 있는 것이다. 가령, 김치는 한국인이 발명한 매우 뛰어난 발효식품으로 전국 어디서고 김치를 먹는다. 그렇다고해서 전국의 김치맛이 획일적으로 같다면야 매우 무미건조한 식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지역적 현실 속에서 젓갈을 주 재료로 한 김치도 나오고, 백김치도 나와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김치는 똑같은 김치되 맛은 모두 다른 김치로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김치라는 점에서는 전국의 김치문화가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이다.

### 4

문제는 각 지역에서의 지역문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주체들이 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역 고유의 성격”을 지닌 문화를 옹기 세워나가는 일이다. 이 점은 “지역의 유구한 전통에서 비롯된 민족문화적 형식”을 기초로 해서 “지역적 삶의 현실을 그리는 내용”을 결합한다는 대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래의 전통문화들 역시 급격한 변화의 물줄기 위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현재 각 지역에 마을단위로 남아있는 마을의 전통문화들 중에서 여전히 많은 잠재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현재도 전국 어디서고 마을굿은 다수 실제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장승,숫대,당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복합문화체와 마을풍물패의 존재는 현재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중에서 전통문화만이 지역문화의 모든 중심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혀 자기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문화가 맥을 못춘 채, 전국의 획일적인 문화를 가져다가 동어반복하는 지역문화는 무언가 ‘뿌리 없는 문화’라고 단언을 내릴 수 있는 탓이다. 지역축제라고 예외가 있겠는가. 



# “붓글씨로 지역문화 일군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충북** 옥천상고 국어교사인 김성장씨(42)는 ‘현장 서예가’ ‘대중서예가’로 통한다. 누가봐도 정통 서예가와는 색깔이 다르다. 우선 그가 쓴 한글 붓글씨를 보노라면 또박또박하고 반듯반듯한 궁체나 고체와는 달리 매직펜으로 ‘아무렇게나’ 쓴 듯한 편안한 느낌이다.

틈틈히 써 온 시편들을 모아 지난해 출간한 ‘내뱃그릇’도 기존의 시집들 처럼 활자로 찍는 방식에서 벗어나 붓글씨 그대로를 인쇄한 것이다. 또 가끔은 종이 아닌 천에 붓글씨를 쓴다. 두 해전에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동학서예전’에 걸개 글씨를 내걸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는 민예총 충북남

지부 일을 도맡아 옥천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지용제 행사에 참가하면서 그의 서예 작품과 함께 정지용 시를 중심으로한 공연을 선보여 못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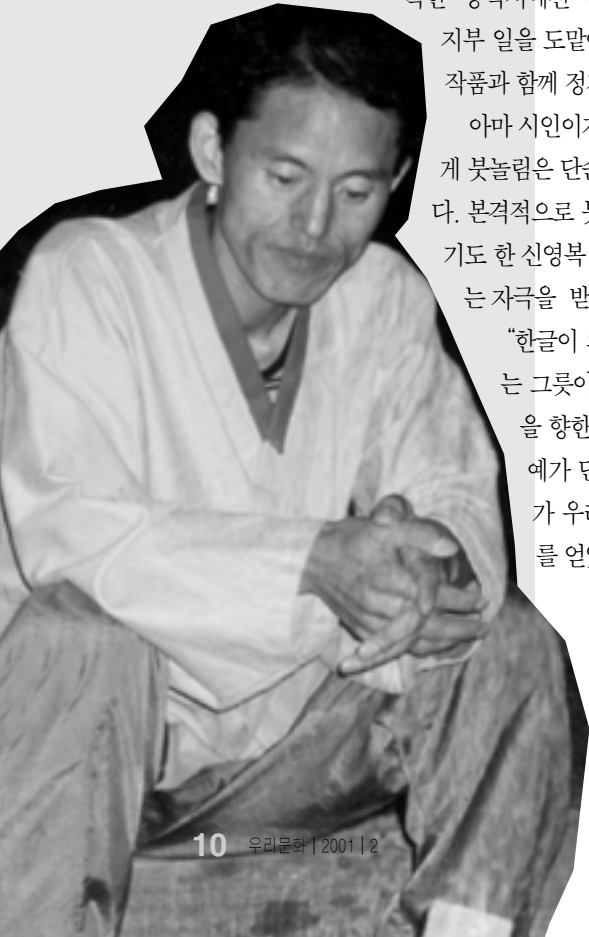
아마 시인이자 서예가인 그에게 시와 붓중 하나를 들라하면 붓을 들것이다. 그에게 붓놀림은 단순한 소일거리 이상이다. 세상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숨은 힘이 다. 본격적으로 붓을 잡게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저술하기도 한 신영복 성공대 교수로부터 ‘서예가 인간 사회의 진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으면서 부터다.

“한글이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서만이 아니라 감정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서체에서 인간적 삶을 향한 몸부림에 자신을 맡긴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느끼곤 합니다. 서예가 단지 취미가 아닌 개인에게 치열한 삶의 한 표현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명한 몫이 있다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 꿈을 꾸는 적은 있습니다”

## 붓글씨는 사회에 개입·간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김씨는 대중들에게 맞는 서예도 “아무렇게나 마구 쓰는 글씨,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글씨, 백(종이)·

◁ 현장서예가 김성장씨



흑(글씨)·적(관인) 세가지 색깔이 이루어내는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죽한 글씨”라며 이같이 “불편 글씨처럼 편하게 쓰는 서예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글씨이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글씨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서예가 너무 옛것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힘차게 쓴 ‘민주주의’ 라는 서예 작품을 갖고 싶어하고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서예 작품을 보고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미술 교사들 가운데 서예를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붓장난이나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학원에서는 전문 서예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과 보통 생활 서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분리시켜 교육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서예를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폐단을 극복해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서예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집안에 서예 작품을 하나 걸고 싶은 사람이 서예가의 작품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서예와 대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작품의 일상화를 위해선 작가들이 좀더 몸을 낮춰야 한다”고 꼬집는다.

**서예와 대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울방학을 맞은 요즈음 그는 ‘옥천이 낳은 시인’ 정지용의 시를 청소년에게 안내해 주는 글을 쓰고 있는데 지용시가 몇편을 제외하면 대체로 재미없고 딱딱해 이걸 어떻게 하면 흥미를 끌면서 동시에 의미있게 읽게 할까 고민중이라한다.

“이는 옥천에서 자라고 옥천에 사는 사람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벌인 일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는 그는 지난 96년 전교조 평조합원으로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을 거부하다 징계를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한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의 붓으로 쓴 시집 ‘내뺨그릇’엔 이때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해발 4백미터가 넘는 산골 도자기마을



‘방곡’으로 쫓겨나 생활했던 이야기가 담담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 그는 5년간의 군 하사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후인 85년 뒤늦게 충북대 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해 4학년때 분단시대 동인에 시를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84년 시집 ‘서로 다른 두자리’에 이어 96년 수업연구사로서 ‘모둠토의 수업방법 10가지’를 펴낸바 있다.

앞으로 “정말 좋은 붓글씨 책을 한 권 쓰려고 베투르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수은주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날 골방에 처박힌 채 붓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다.☞

# 가야인도 성형수술을 했다

편집부



이 글은 호형출판이 최근 발간한 「역사스페셜2」(원작 KBS역사 스페셜·글 정종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앞서 나온 「역사스페셜」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한 KBS 역사 스페셜 방송분을 담은 것입니다. ‘발해는 왜 동해를 건넜는가’ ‘신라인도 원샷을 했다’ ‘풍납토성, 지하 4미터의 비밀’ ‘고려개국의 예언서, 도선비기는 실재했다’ 등 1·2권에 걸쳐 총 30편이 소개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예안리, 작고 평범함 농촌 한 귀퉁이 눈을 개간하려 흙을 파내자 예사롭지 않은 유물들이 나왔다. 전에도 드문드문 이런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땅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땅주인의 신고로 발굴작업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오래 된 무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고고학자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주목했다. 이 집단 무덤터의 주인공은 1600년 전 김해지역에 살던 가야인들이었다.

## 김해시 예안리 무덤서 '수수께끼' 두개골 발견

모두 4차에 걸친 발굴작업 끝에 뿔뿔하게 조성된 180여 개의 무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분묘들의 규모로 보아 최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서민계층의 공동묘지로 추정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무덤 속에 1구 많게는 10여 구의 인골(人骨)이 남아 있었다. 부장품인 1000여점의 토기를 비롯해 총 2000여점의 유물도 나왔다. 예안리 무덤은 그야말로 고대 가야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의 보고(寶庫)였던 것이다.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안리 인골은 모두 190여 구. 숫적으로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고대 인골이라 하기에는 보존상태도 무척 양호한 편이다.

이 인골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정상적인 인골에 비해 얼굴 폭이 넓고 미간에서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훨씬 짧은 두개골이다. 다른 두개골과 달리 이마 부분도 뒤로 누워 있다. 이런 두개골은 고대 가야인 중에서 특별한 경우로 우리 의학사에서도 이런 두개골이 연구된 기록은 없었다.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수수께끼의 두개골인 셈이다.

예안리 발굴에 참여했던 김진정 교수(부산의대·해부학)



◀ 추정 복원한 옛 가야인의 얼굴(왼쪽)과 고대 이집트 조각품에 보이는 여인의 편두

는 이 두개골이 선천적인 기형이 아니라 출생 뒤 어떤 외적인 힘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인공적으로 이런 특이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일찍이 중국에선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纏足) 풍습이 있었다. 가야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풍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개골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만들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 아기 머리 납작하게 눌러… 이집트 편두와 유사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魏書 東夷傳)」은 가야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전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했다. 지금도 진한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납작하다.(兒生便以石壓其頭 欲其扁今辰韓人皆扁頭)

기록 속의 진한(辰韓)은 3세기 중엽의 진한과 변한(弁韓) 즉 김해지역의 가야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머리를 납작하게 한다고 해서 당시엔 이를 '편두(扁頭)'라고 했다.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편두의 실체를 예안리의 인골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편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김진정 교수는 아기의 머리 앞위에 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기를 10여 차례 반복하면 아기의 유연한 두개골이 앞뒤로 납작해진다고 한다. 태어난 지 1개월이내의 아기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현재 두개골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납작한 부분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대로 돌을 얹어 그 무게 때문에 눌린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뇌는 머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 뼈를 녹이는 세포를 내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압력이 가해진 부분의 뼈가 얇아지는 데, 편두 두개골이 쉽게 부서지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다.

편두를 하면 얼굴 모습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의 편두 얼굴을 복원하는 작업은 이 방면의 전문가인 조용진 교수(서울교육대·해부미술학)에게 의뢰했다.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훼손이 덜 된, 비교적 온전한 두개골이 필요했다. 출토된 인골중 가장 양호한 상태의 편두 두개골을 선정했다. 소중한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 두개골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편두를 복원하기로 했다.

두개골 모형을 만들기 위해 두개골의 컴퓨터 단층촬영부터 했다. 이 작업을 통해 얼굴 전체적으로 뼈의 두께가 얼마인지 정확히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뼈의 두께를 재는 이유는 뼈의 두께에 따라 각 부위에 살과 근육이 어느 정도 붙는지 결정되고, 눈썹과 입술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두개골의 입체 측정. 모두 3개의 좌표를 설정한 후 2mm 간격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아 인골의 표면을 측정한다. 이렇게 3개의 좌표에서



측정한 표면이 하나로 모이면 두개골의 입체가 완성된다. 그렇게 측정한 두개골 표면과 두개의 수치로 예안리 것과 똑같은 두개골 모형을 완성했다.

이 두개골 모형을 토대로 1주일에 걸쳐 세밀한 작업을 했다. 뒤로 젖혀진 이마, 성형수술을 한 현대여성처럼 오목하고 높은 코, 그리고 당시의 평범한 가아여인에 비해 유난히 턱이 작은 20대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조 교수는 내강(內腔)이 작진 않지만 두정부(頭頂部)가 돌출하면서 미간부가 눌러 안쪽으로 아래로 처지고 대신 눈꼬리 쪽은 피부가 당겨 위쪽으로 치켜올라갔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코 부분이 돌출하고 그 아래는 발육이 좋지 않아 턱이 좁아지며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편두 풍습은 시기는 다르지만 이집트와 마야에서도 보인다. 종교의식과 관련된 고대 이집트 조각품에 등장하는 6000년 전의 여인도 편두인데 예안리의 것과 일치하는 여러 특징이 있다. 이마 부분이 들어가고 코 부분이 돌출한 점, 턱뼈의 각도가 둔각으로 돼 얼굴 앞쪽으로 나오고 뒤통수가 올라 붙은 점 등이 전형적인 편두 형태를 나타낸다.

예안리 무덤에서 출토된 편두 인골은 모두 10구. 그런데 이 편두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당시 편두를 하고 코를 높이는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는지, 또는 어떤 특수한 지위를 상징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편두가 일부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무덤 같은 일종의 특수 신분의 여성들에게 행해진게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가아인들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대적인 의미의 성형수술은 아니지만 1600년 전에 이런 성형술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옛 백사장택에 1600년 동안 인골 보존

당시 예안리 무덤은 밀집된 2중구조의 분묘형태였다. 2중 3중으로 된 땅 속 무덤에서 190여 구의

인골이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인골은 모두 합해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많은 이 인골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까.

무덤 터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다. 다만 바닷가에서 먼 곳인데도 무덤 터 여기저기 조개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발굴 당시 무덤을 덮고 있던 흙 속에서도 이런 패각(貝殼)들이 나왔다. 무덤 터에서 채취한 흙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해본 결과 유공충(有孔蟲)이라 불리는 단세포 바다생물도 발견되었다. 3세기경만 해도 바닷물이 김해평야 일대를 덮어 해안선이 바로 고분군 옆에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실제 고분군은 육계사주(陸繫沙洲)로 백사장이 깨끗한 모래 지형이었다. 1600년 전 예안리는 바닷가 마을이었고 현재의 무덤은 백사장이었는데, 100년 뒤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곳에 무덤을 만든 것이다.

무덤 터가 실제 백사장이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땅에선 황화철이 만들어진다. 이 황화철이 과산화수소와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실험 결과 예안리의 땅은 바닷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청의 양해를 얻어 무덤 터의 토양도 채취했다. 발굴 후 무덤을 덮는 과정에서 흙이 뒤섞인 탓에 원래의 토양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땅 속 1m 20cm를 파들어가서야 원래 인골이 묻혀 있던 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흙을 갖고 두 가지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일반 논과 예안리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흙의 칼슘 함유량을 측정하는 실험, 토양 속에 칼슘이 많을수록 인골이 잘 보존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한다. 두 번째 실험은 미생물의 활동 가능성을 알아보는 PH도 측정이다.

실험 결과 일반 논은 산성 토양으로 미생물이 활동할 수 없고 칼슘 함량도 적은 편이었다.

해수욕장의 토양은 미생물의 활동이 없는 대신



칼슘 함량은 무척 많은 편이다. 예안리 고분 주변의 흙은 미생물이 활동하기 어려운 알칼리성이지만 칼슘 함량은 일반 논외 5배가 넘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예안리 무덤 터에 다수의 인골이 양호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를 알 수 있었다.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토양은 비가 오면 패각의 칼슘 성분이 녹아 밑으로 스며든다. 모래땅은 특히 물이 잘 스며들어 땅 속의 인골까지 탄산칼슘이 충분히 공급된다.

또 하나는 토양 PH가 높으면(알칼리성) 토양 속의 특정 성분 이룰때면 규산 같은 게 녹아서 빠져나와 인골에 침착(沈着)되며 니스 칠을 하는 효과를 낸다.

이밖에 예안리 무덤의 인골들이 잘 보존된 이유로 이 터의 지하수 유동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약한 점을 들 수 있다. 모래에 섞인 패각 성분이 녹아내리면 지하수의 칼슘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칼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알칼리성인데다 칼슘까지 과포화상태가 되면 인산칼슘인 인골도 더 이상 녹지 않는다고 한다. 예안리 인골은 그래서 16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 일부러 임신모 머리에 구멍 뚫기도

인골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예안리에서 출토된 인골들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어 인골 전체를 조립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인골은 보통 골반의 모양으로 성별을 가려낸다. 여자는 골반 안쪽이 대체로 90도를 이루고 남자는 70도를 이룬다. 아기를 낳은 여자의 골반이 넓은 반면 남자의 골반은 좁은 것이다.

키는 대퇴골, 즉 엉덩이에서 무릎까지의 뼈 길이로 추정된다. 예안리 인골들은 대개 장대한 기골이 특징이다. 1600년 전 김해지역에 살던 가야인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1930년대 중부 이남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
① 가야인	163	150.3
② 1930년 중부이남	162.5	149.1
③ 현재 전국	165.8	157.3

①부산대박물관 조사②조선총독부 조사③보건복지부 조사

나이는 치아의 마모도가 말해준다. 이런 흔적들을 근거로 가령 나이에 비해 치아를 무척 많이 사용한 인골의 관절이 굵으면 생전에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예안리 인골 중 마치 도려낸 듯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두개 골이 부산대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구멍 옆에 또 다른 부서진 자국이 있는데 죽은 후에 부서되거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경우는 뼈에 균열이 생겨 이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균열 하나 보이지 않은 이 구멍에선 부서진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잘린 단면도 반질반질 윤이 날 만큼 깔끔하다. 창 같은 무기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타격에 의한 두개골 파손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조용진 교수는 이 구멍 자리가 평면으로, 뚫기 편한 부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러 도려낸 자국이라는 것이다. 고대 가야인들이 뇌수술이라도 했던 것일까? 조교수는 주술적이든 치료를 위한 것이든 이 구멍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뚫어진 것이라면 그것도 상당히 숙련된 솜씨라고 한다. 주변에 균열 같은게 나지 않도록 전문 수술도 구로 시술한 흔적인 것이다. 뼈를 시술한 후 만약 살아 있었다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뼈의 단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치유흔'이 생기는데 이 인골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이 인골의 주인공은 수술 직후 곧바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인골은 출토 당시 골반뼈 부근에 아기의 두개골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임신 말기나 출산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산모와 아기의 죽음은 흔한 일로, 실제 예안리 무덤 터에선 꽤 많은 수의 아기 옹관묘가 발견

되었다. 아기가 죽으면 독 안에 시신을 넣고 두 개의 독을 맞대어 붙이는 옹관은 대개 부모나 가족무덤 옆에 놓인다. 예안리의 경우 어린아이들은 전부 옹관묘로 매장되어 있다. 옹관묘의 어린아이 비율이 전체의 28% 가량인 점으로 보아 당시의 유아사망률이 아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인골은 또 그들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도 말해 준다. 예안리 인골에선 무기에 의한 손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을 괴롭힌 것은 다양한 질병이었다.

고된 노동으로 척추가 눌러 척추 디스크를 앓던 인골이 보인다. 조금만 움직여도 빠져나온 뼈가 신경을 건드렸을 테니 지독한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뼈가 부러진 후 제대로 치료를 못해 뼈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인골도 있다. 정상적인 인골에 비해 대퇴골 관절이 훨씬 큰 인골은 골반에 대퇴골이 완전히 맞물리지 못하면서 고관절 부분이 부어 올라 아마도 평생 한쪽 다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외상에 의한 염증이 골막염을 일으킨 인골도 있고, 증세가 더 심해 염증이 뼈까지 침투해 들어간 인골도 있다. 이런 질병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상존한다.

인골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치아다. 가야인골의 치아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본 결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치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야인의 치아는 대개 상아질이 완전히 닳아 마도도가 심했다. 치간의 3분의 2정도가 없어진 인골도 있다. 가야인들의 치아가 대부분 30~40대만 돼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닳은 것은 그만큼 치아를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생전에 이가 모두 빠져 그야말로 잇몸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다. 고름주머니가 생긴 치아는 살아 있었다면 골수염까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축농증에 의한 고름이 위 턱뼈에 구멍을 낼 정도로 심한 축농증에 시달리던 사

람도 있다.

보통 현대인의 치아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데 예안리 인골의 치아는 대부분 옥니다. 당시 가야인들이 아래턱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치아 대부분에 균열이 나 있는 것은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다. 그들은 딱딱하고 모래가 많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이빨을 사용해 베를 찼다고도 전하다. 가야인들은 아래턱을 끊임없이 움직였고 따라서 아래턱이 커지므로 옥니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가야인과 큐슈인 배를 타고 문화 교류

삼천포 앞바다의 늪도는 100여 호가 사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가 유적지라고 할 만큼 기원전 유물들이 지금도 출토된다. 1985년 늪도에선 기원전 1세기대의 주거지 터와 무덤들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정작 늪도에서 주목할 것은 인골이다. 여기서 출토된 인골이 예안리의 인골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안리 가야인과 같은 계통인 셈이다.

늪도의 인골에는 살아 있을 때 송곳니를 뺀 흔적이 남아 있다. 멀쩡한 치아를 빼면 그 뒤에 홈이 메워지고 간격도 줄어든다. 이런 발치(拔齒) 풍습은 1930년대까지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지에서 널리 행해졌다. 고대 중국의 그림 속에서도 발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통과의례와 관련된 행위로 가령 성인식과 결혼식 때 혹은 가족이나 집단의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 발치를 한 인골은 일본 큐슈 지방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풍습이 유행한 것이다.

늪도에서 출토된 다른 유물들, 예컨대 탄화미, 중국화폐 '반량전', 일본의 야요이 토기 등은 당시 중국·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늪도가 남해안의 교통 요지로 국제적인 항구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야요이 토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반도 남부해안으로 부산·김해·고성·삼천포·거제·여수 등 7개 지역인데, 당시 일본과 교류하던 예안리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야요이 인골’은 예안리의 가야인과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다. 예안리 발굴에 참여했던 오가타 교수(형질인류학)도 시차가 있지만 예안리의 인골과 큐슈에서 출토되는 인골이 닮았다고 한다. 특히 미간이 좁고 코가 길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긴 특징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일본 큐슈 지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야요이인은 점차 일본 본섬으로 확산된다. 야요이 토기를 만들고 기존 일본인과는 다른 이 야요이인은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일본을 오가기 위해서는 거센 파도를 헤칠 수 있는 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가야인들은 활처럼 흰 뗏목 위에 배를 엮었다. 큐슈 지역의 사람들도 가야의 배와 똑같은 모양의 배를 사용했다. 예안리 무덤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야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터전을 잡았다. 그들과의 교류는 가야인들이 예안리에 살았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지금은 국경선으로 나뉘어 있지만 1600년 전만 해도 가야인들과 북부 큐슈인들은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 4세기 이후 편두사라지고 순장문화 등장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 가야 인골에서 편두가 나타나는 시기는 4세기 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편두인골을 찾아볼 수 없다. 편두 풍습은 왜 사라진 것일까?

예안리에서 발굴된 당시 가야인들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목곽묘는 59기, 모두 4세기 이후에 조성된 무덤들이다. 이 무덤들은 부장품을 시신의 발 밑에 놓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무덤은 부장품을 놓는 위치가 다르다. 무덤 양식이 변한 것이다. 4세기 이전 초기

목곽묘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판자를 대고 시신 옆에 부장품을 놓았다. 그런데 4세기 이후부터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판자를 대는 형식은 같지만 부장품을 발치에 놓거나 따로 곱을 만들기도 했다.

3세기말 김해 지역 지배층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에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순장문화가 느닷없이 등장한다. 가야 지역에는 없던 청동 향아리도 나온다. 오르도스형 동북이라고 불리는 이 향아리는 북방민족의 전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에선 그때부터 북방 기마 민족이 입던 철갑옷들이 나타난다. 느닷없이 가야사회에 등장한 이북방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현상의 배경으로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장은 쉽게 말해 북방의 정신문화다. 북방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런 문화를 소유한 종족의 이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모용 선비족(慕容鮮卑族)의 침략을 받은 부여 왕족이 동해안의 옥저로 피난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 나중에 이 세력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평원의 민족인 부여는 옥저 같은 협소한 지역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철과 교역의 중심지인 김해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순장은 그런 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이후 가야 사회에서 편두가 사라졌다는 점은 가야를 지배하던 기존의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1600년 전의 인골들은 이처럼 한 시대에 불어닥친 변화의 소용돌이를 암시한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장대한 기魄이었고 편두나 발치 같은 독특한 풍습도 있었다. 거주 범위도 한반도 남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지역까지 확산돼 있었다.

그동안 가야는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신비의 왕국으로만 알려져 왔다. 예안리 인골의 삶과 죽음은 비어 있던 가야산의 한 장을 채워줄 것이다. 

## 여류 농촌운동가 최 용 신



**최용신**(崔容信)은 1909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본제국주주의에 완전히 빼앗기기 1년 전 함경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경주 최씨 창희(昌熙)공의 3녀2남 중 차녀로 태어났다.

원산에서 10여리 떨어진 두남리는 일찍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어 서양문화와 접촉, 개화된 마을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녀로 하여금 기독교신앙을 갖게 하였으며, 봉사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원산의 루씨보통학교,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협성여자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를 중퇴하기까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목 전희균 목사의 감화와 협성신학교의 황에스더(黃施德) 교수의 지도와 영향을 받아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은 쫓고도 가난하고 무지한 농촌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1930년대 동북아시아 정세는 일본제국주의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면서 대륙침략을 감행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고 인적 동원과 물적 수탈을 자행하면서 파쇼적 지배강화를 추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시기농촌계몽운동은 주로 언론사와 기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최용신의 농촌계몽운동은 기독교계통의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YWCA의 농촌파견교사로 임명되어 1931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천곡리(샘골 : 현재 안산시 사동)에 파견되면서 그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농촌 아동을 민족의 동량으로 키우는 구국교육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던 것이다. 신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처녀로서의 수줍음과 부끄러움도 버린 채 직접 밭을 밟고 눈에 들어가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농촌부녀자들과 함께 밭을 매면서 구슬땀을 같이 흘리고, 밤에는 가까거거의 한글강습의 야학을 열었던 것이다.

그녀는 우선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여도 마땅한 교육장이 없는 것을 절감하고 강습소 설립에 온 힘을 경주했다. 천곡에 온지 8개월만에 강습소 인가를 받아 내고 1년 3개월만에 강습소를 신축해 110명의 아동을 교육시키는 학교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최용신의 천곡에서의 활동은 천곡강습소의 교장 겸 교사로서, 마을 주부들의 주부회 지도자로서, 마을 청년회의 후원자로, 천곡교회의 중으로서 천곡의 온 마을에 그녀의 손길과 마음이 아니 거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녀는 천곡의 산 선지자였다.

1935년 장중첩증(腸重疊症)에 의해 26세의 짧은 인생으로 최용신이 사망하자 천곡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회장으로 1,000여명의 조문객의 애도 속에 강습소가 보이는 곳에 안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소재로 작가 심훈이 '상록수'라는 농촌소설을 집필하였으니 상록수의 여주인공(채영신)은 최용신을 모델로 한 작품이었다.

일제하에서 가냘픈 여성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농촌에 뛰어들어 일제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 맞서면서 농촌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녀의 거룩한 희생정신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김**





## “어서가세나”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영남 선비들이 밟고 다녔던 문경새재. 호랑이가 유명해 대낮에도 몇명씩 무리를 지어 길을 떠나곤 했다. 어사화를 쫓고 금의환향하든 도포자락에 눈물을 흠치며 낙향하든 이곳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았다. 새로이 부임하는 감사와 이임하는 감사가 서로 마주치는 곳도 여기다. 문경은 예로부터 ‘길의 문화’다. ‘문경로드(munhyeongroad)’ 라고나 할까?



# 사재 털어가며 ‘길의문화’ 열어

## 이창교 문경문화원장 인터뷰

올해로 문경문화원은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가장 왕성한 나이로 할 수 있다. 문경의 이미지를 ‘폐광촌’에서 ‘문화관광지’로 바꾸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그동안 문경문화원은 점촌문경문화원으로 이름이 바뀐후 다시 문경문화원으로 환원되는 변화를 겪으

면서 ‘단칸방’ 신세에서 탈피해 ‘독채’를 마련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문경시로 부터 옛소방서 건물을 개보수한 150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 원사를 무상 임대 받은 것. ‘문경문화재’



△ 이창교 문경문화원장

‘경상감사교인 및 도입행차’ ‘찾사발축제’ 등 기존 사업을 다지는 동시에 ‘문경지’ 발간, ‘탄항봉수대’ 복원등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럴 때를 두고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던가? 주위에서는 이렇게 문화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이창교 문경문화원장(64)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몰래 사재를 털어내며 향토사 서적을 발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그의 노력을 아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던지는 말이다. ‘문경문화의 주춧돌’ 이창교 원장(64)을 만나봤다.

문화원장님이 문화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16년 전입니다. 내고장 향토사의 조사연구및 지역 전통 문화 개발·보존·전승에 관심을 가지고 다년간 임원으로 일해오다 85년도에 전체회원의 권유와 본인의 뜻한 바가 있어 문화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즉시 현재 돈가치로 말하면 2~3억원에 이르는 5천만원의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아 침체된 문화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수혈 덕택에 ‘향토사연구소’를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게 된다)

이제까지 문경문화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85년 문화원장에 취임하면서 향토사연구위원 두명을 서울로 보내 ‘규장각’ 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지서 2개월여동안 문경에 관한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관내 방방곡곡을 두차레 이상 발로 뛰어



△ 청소년들이 문경석탄박물관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다니며 자료 수집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끝에 빛을 보게 된 게 바로 6백70페이지 분량의 광복 40주년 기념 종합향토지 '문경대관'입니다. 이 책은 문경새재 2관문이 복원 되기 전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향토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발간후 얼마동안은 국내 향토사학자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기증의뢰 요청이 쇄도하는 등 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한가지 테마를 정해 향토사를 심층 조사·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간된 향토사료집만도 15집에 이릅니다. 또한 구한말 우리 고장 출신 항일의병 대장인 운강 이강년선생의 사적을 발굴함으로써 기념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아니라 청소년교육사업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와 실천, 그리고 올바른 예절을 익히도록 하는 '충효·예절 교실'을 비롯 '한문·서예교실', '독서문화상 시상', '문화유적현장학습', '학도문화예술대회'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경만의 고유한 문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경의 문화는 한마디로 '길의 문화'입니다. 선비들의 과거길인 '새재(鳥嶺)'가 그렇고 왕건이 목숨을 건졌던 토천(兎遷)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문경은 명실공히 남북간을 잇는 문화교류 로드(Road)로 시인묵객이 노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의 구비마다 세력간의 각축장이 되는 운명을 겪기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문경시역은 어떻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은 무엇보다 석탄광산 폐광후의 대체산업으로 '관광문경'의 육성을 위해 함께 달리는 '단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문경문화제', '경상감사교인및 도입행차', '찾사발촉

제', '문경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에따라 문화원 총 예산이 3억 6천 2백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에는 '문경지증보판' 발간 및 '탄항봉수대' 복원을 위해 8천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확정했습니다. 특히, 4년전부터 문화원 운영비 정보보조외에 1천만원씩 지원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6백만원이 많은 1천6백만원으로 증액해주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 방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관광지를 한 가지 든다면?

"사적 제147호인 '문경새재'와 '고모산성' 아래 토천(兎遷)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곳 모두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옛길'에 얽힌 역사유적과 경관



△ 문경문화원이 펴낸 '문경대관' 등 15권의 향토사료집

이 빼어납니다. '문경새재'에는 지난해 KBS드라마 '고려태조 왕건촬영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해 40만명이던 관람객이 2백만명으로 경충 뛰어 올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전은 '토끼비리'라고 불리는데, '비리'는 우리 방언으로 벼랑을 뜻합니다. 고려 태조가 신라정벌을 위해 남진할 때 이곳에 이르러 길이 끊겨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외에도 '문경새재박물관' '문경온천' '문경석탄박물관' 등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관광·휴양에 안성맞춤입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문화원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향토사료 조사·발굴·보전에 더 힘쓰는 한편

현재 문화교실 6개반을 15개반 정도로 확대해 청소년교육 및 일반 사회교육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 '문경지 증보판' 발간 및 '탄항봉수대' 복원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체 문화원사를 건립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정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어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도시와 지방간 문화예술의 수혜 폭을 평균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문화원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문화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차등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바랍니다"

### 〈문경문화원 소식〉

문경문화원 사무국에는 이창교 원장을 비롯 정용순 사무국장·이욱 과장·정현희 간사가 일하고 있다. 고재하 향토사연구소장이 바로 옆방에서 사무국을 도와주고 있다. 정 국장이나 고 소장

은 모두 나이가 70줄을 넘었지만 문화행사를 치를 때엔 어느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력이 넘친다. 고 소장이 향토사를 줄줄이 꿰고 있다면 정국장은 문화행사 노하우를 머리속에 담아두고 있다. 때문에 정국장이 드러누어 버리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며 시청 직원들은 10월 문경문화제를

앞두고 정국장에게 보약을 지어준다고. 부원장은 전경홍·전병갑등 2명. 정회원 150여명.



문화원 가족들이 탄항 봉수대 복원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창교 문화원장, 세번째줄 첫번째가 정용순 사무국장. 그 바로 옆이 고재하 향토사 연구소장.

# ‘고려촌’ 조성…쉬어가는 문화관광지로

## 김학문 문경시장 인터뷰

“문화와 관광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문경은 옛날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던 영남 대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을로 산자수명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유적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 가은읍 갈전리에서는 후백제 왕 견훤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때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왜군과 싸우다 포로가 된 몸으로 끝가지 항전하다 장렬히 순절한 신길원 문경현감, 구한말 의병대장인 운강 이강년선생, 70여명을 헤아리는 충신·대학자·열사등이 태어나고 살았던 자랑스런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문경의 새재에 지난해 4월 1일 KBS 태조왕건 촬영장이 축조돼 연간 2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등 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은 촬영장을 ‘고려촌’으로 재조성해 고려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산 교 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학문 문경시장(66)은 임기중에 “문경을 ‘문화관광휴양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다”며 “왕건·궁예·견훤 캐릭터등 또 다른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경시와의 문화적 파트너 관계인 문경문화원에 대해 칭찬할 점 한가지와 개선할 점 한가지를 물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시장은 “문경문화원이 어느 시군보다 활성화 되고 있어 문경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시장의 ‘문화관’을 들어봤다.

요즘 문경은 태조왕건촬영장으로 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측면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21세기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휴양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시는 태조 왕건 촬영장을 오픈한 결과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27억원, 이로 인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2백50여억원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후삼국 시대 문경의 역사적 인물인 후백제 견훤대왕을 재조명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효과 못지 않은



△ 김학문 문경시장



교육적 효과라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옛 고려궁과 고려시대의 기와집·초가를 그대로 재현한 촬영장을 '고려촌'으로 재조성해 고려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계획은?

“우리 문경은 예로부터 영남대로의 길목으로 ‘길 문화’가 잘 발달한 곳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문경새재 과거길과 토천(兎遷)을 정비·복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문경새재도자기 전시관 건립과 고모산성 정비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고려촌 저잣거리의 조성과 왕건·궁예·견훤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등 후삼국시대를 배경으로한 문화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즐길거리와 살거리·볼거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중입니다”

올해중으로 실시할 문화부문의 사업은?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조선시대 신·구 경상도 관찰사의 교인식및 도입행차 재현과 함께 문경의 우수한 전통도자기의 맥을 잇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문경 전통차사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문경 전통차사발 축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문경의 문화와 역사를 총망라한 증보판 문경시지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인 김용사대웅전 및 문경망명어 사기요를 보수하는 등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 향토문화를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임기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임기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우리 시를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경새재가 태조왕건촬영장으로 인해 관광객이 쏟아지고 있지만 편히 쉬고 즐길 공간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문경온천관광지 및 이화령휴식단지·문경리조트등의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편 올해중으로 문경새재내에 도자기전시관과 야외공연장을 준공하는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시는 1회성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체류형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 방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관광지를 한가지 든다면?

“무엇보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흘산을 중심으로 대야산·조령산·회양산등 9백미터 이상의 23개 명산이 첩첩이 둘러쳐진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흘관·조곡관·조령관등 문경 3개 관문, 신길원현감충렬비, 태조왕건촬영장,



장원급제길등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원을 어떻게 돕고 있으며 문화원에 바라고 싶은 것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문경문화원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문경문화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경문화원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문경은 문화기반시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의 전당등의 종합예술 공간 건립 자금 및 운영비를 대폭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개최되는 각종 음악회나 연극등의 문화행사를 지방에까지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문화원 예산을 증액시켜 줌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이 열이 담긴 전통문화와 다양한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뤄 21



△ 김학문 문경시장(양복입은 이)이 다도시연을 보고 있다.



△ 찻사발을 보며 활짝 웃고 있는 김학문 문경시장

세기의 세계적인 한국문화로 빛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문경시의 문화시설

각종 연극과 연주회·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문화회관(864석)과 도서관 3개소, 여성회관, 소극장및 기타 문화시설, 그리고 문경새재박물관·석탄박물관등 박물관 2개소가 있다. 특히, 문경새재박물관과 석탄박물관은 외래 관광객이

자주 들르는 대표적 코스다. 문경석탄박물관은 국내 3개 석탄박물관중 실제의 탄광소를 갖고 있는 석탄박물관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문경새재도자기전시관과 야외공연장이 올해 완공예정이다. 지난해 문화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申石虎로 유명...찾사밭 · 청려장 유명

문경은 80년대 2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9만명으로 반절정도 줄었다. 당시엔 탄광촌의 활기가 달아올라 돈이 넘쳐났다고 한다. 40여개에 이르던 탄광이 문을 닫은 지금은 다시 문화관광지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볼 때 KBS 태조왕건 촬영장은 대성공으로 평가

신경통에 좋다는 효도지팡이 '청려장'이 유명하다. 문경의 진산 주흘산도 오를만 하다. 태조가 한양에 도읍지를 정할때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삼각산이 먼저 솟아오른 것을 보고 문경으로 돌아와 아예 서울을 등지고 앉았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이곳에 가면 문경새재박물관(054-572-4000)과 경상감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교귀정, 원터,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을 둘러볼만하다. 또 시간이 나면 탄광촌 광부들의 작업 모습을 모형과 소리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경석탄박물관(054-550-6424), 구구려와 백제를 친 당의 소경방이 신라마저 치려고 하는 속셈을 꿰뚫은 김유신이 당병에게 짐주(酎酒)를 먹여 죽이고 끌어물었다는 당교,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금하굴, 고 박정희 대통령이 혼도로 재직시 묵었던 하숙집 '청운각'을 다녀오는 것도 또하나의 여행 재미다. **문**

되고 있다. 문경은 신(신씨) 석(돌) 호(호랑이)로 이름나 있다. 문경요(명장 천한봉)·영남요(김정옥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등 10여군데 산재한 도요지에선 지금도 장작밭로 찾사밭을 굽고 있으며 사과·배와 함께 중풍을 예방하고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청소년 · 주민 호응 커 ... “이젠 달라져야”

류장수 편집주간



### 시상문화원

시상문화원은 지난해 12월 6일 동서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동서대학교 박동순 총장을 강사로 초청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버려야할 생활문화와 지켜야 할 생활문화에 대하여 심도높은 강연을 하였는데 특히 최근의 비문화적 생활환경을 질타하고 전통의 미풍양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노력을 강조하였다.

강연이 끝나고 우리 전통춤과 우리가락 공연도 있었다.



### 동두천문화원

동두천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3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병창 한국리더십센터 이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21세기 문화의시대 생활문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우리 전통의 생활문화와 현대 생활문화에 대해 폭넓은 강의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의왕문화원

의왕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관내 정원고등학교 강당에서 고3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현장 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정원고등학교 김연진학생부장을 초청강사로 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하였다.

미래의 국가栋梁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문화를 실천할 때 그 나라 미래는 밝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 양구문화원

양구문화원은 지난해 12월 7일 양구군민회관에서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맡은 최병태 양구문화원장은 우리 생활문화 중 고쳐야 할 점과 가꾸어 보존해야 할 미풍양속에 대하여 실제 생활의 예를 들어가면서 강연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인제문화원

인제문화원은 지난해 12월 5일과 26일 2차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두번 다 인제문화원 사랑방에서 개최된 강연회 강사는 오정진 인제 문화원장이 담당하였다.

문화원 가족을 대상으로한 강연회에서 오정진원장은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 영월문화원

영월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9일 2차에 걸쳐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차는 영월고등학교 강당에서 2차는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개최했는데 세명대학교 유근민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어 생활문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연을 하였다.



## 철원문화원

철원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철원문화원 강당에서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조준하 성균관유도회 교육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우리 전통예절 중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11월 27일에도 강연회를 개최한바 있다. (강사 박면호 철원문화원 부원장)



## 청주문화원

청주문화원은 지난해 12월 4일과 15일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했다.

12월 4일은 청주여고 예능관에서 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상현 한국심리교육원장이 강연하고 12월 15일은 로얄관광호텔에서 일반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필가이며 청주문화원장인 박영수 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두 강사 모두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책자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 제천문화원

제천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2일과 27일 2회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했다.

22일은 유유예식장에서 27일에는 시민회관회의실에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씨를 초청하여 생활문화의 중요성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들었다.

특히 김진명씨는 습관화된 규범과 관행을 중심으로 실생활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 보은문화원

보은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2회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가졌다.

12월 11일은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14일은 보은고등학교에서 한규선 대전보건전문대학교수를 강사로하여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첫 강연회는 일반을 대상으로 두번째 강연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기 세대에 부합되는 생활문화를 심도있게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 지난해 12월 19일 서천군민회관에서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 초청강사는 박봉준 대전 MBC부장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300여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는데 생활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특히 전통 생활문화 중 계승해야 할 미풍양속과 과감히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은 지난해 12월 8일과 27일 2회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2월 8일은 홍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인이며 결성고등학교 교사인 구재기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고 12월 27일에는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아동문학가이며 광동초등학교 교사인 김정현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첫 강연회는 학생들이, 두번째 강연회에는 문화원가족들이 주로 참가했다.



##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은 지난해 12월 5일 대천문화원 강당에서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200백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버려야할 생활문화, 가꾸고 보존해야 할 생활문화, 세계화시대에 알맞게 행동해야 할 세계 보편적 생활문화 등에 대하여 폭넓은 강의를 들었다. 특히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구례문화원

구례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7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7일에는 구농관에서 문승이 전구례문화원장(전남대교수)을 강사로 초청하여, 12월 2일에는 구례고등학교 강당에서 문학박사 정기석시인을 강사로 초청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주로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이번 강연회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김희규 영암문화원장이 강연을 담당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책자 내용을 중심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 생활문화에 대하여 폭넓게 강연하였다. 강연이 끝난후 전통무용 위로 공연도 가졌다.



## 익산문화원

익산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문화원기획전시실에서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2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통일안보 순회강사 김복현씨가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책자 내용을 중심으로 실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하였다.



## 장수문화원

장수문화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장계고등학교 강당에서 김상중주논개선양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상중 강사는 장수에는 「이덕삼절오의」의 인물이 있다면서 이들이 장수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강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울릉문화원

울릉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2일 2회에 걸쳐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 하였다.

21일은 울릉군 종합복지관에서 김성황충효교실 훈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22일에는 마을회관에서 장두민민방위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 문화가 크게 문란해진 것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 하동문화원

하동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동안 하동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지역현장 생활문화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동문화원 강연회는 지리산 청학동 이학규 훈장을 초청하여 우리 전통 생활문화중 좋은 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강의하여 참석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실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하는 이학규훈장은 강의도중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 합천문화원

합천문화원은 지난해 12월 5~6일 이틀동안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2월 5일에는 삼가 고등학교에서, 12월 6일에는 야로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강연회의 강사는 권병석 합천문화원장이 맡았다.

권병석원장은 각 고장마다 독특한 생활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닦아 실천하면 선진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분청사기 도판(타일)’ 해외 수출하는 오세양 한국민예(주) 대표

## ‘네모낫 도자기’로 돌파극 찾았습니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해리 와 셸리가 만났을 때’란 영화 제목처럼 문화와 건축이 만났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기도 이천시 신문면 고척리에 위치한 한국민예(주)는 ‘분청사기 도판(타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해외수출에 성공한 업체다. 도자기 문화의 진수인 분청사기와 타일이란 건축자재를 접목해 새로운 문화상품 ‘土花(Toka)’를 만든 것. 이 상품으로 지

난 1월 문화관광부와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뽑은 ‘2000우수공예문화상품 100선’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사 오세양 대표(41)는 공예인이 아니다. 1978년 유한공고 건축과를 졸업한 후 85년까지 럭키개발(현 LG종합건설)·금강종합건설·인테리어 회사등을 다니며 대학에서도 건축학을 전공한 20년 경력의 ‘건축맨’.

이처럼 문화와는 전연 상관없는 딱딱한 분야에서 일해오던 오씨가 분청사기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93년. 우연히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 사람을 알게 되면서 부터다. 도요지에서 눈으로만 보던 도자기를 직접 빚고 굽는 체험을 통해 그 멋과 빛깔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왜 우리 것이 좋다고 하는지 그 제서야 비로소 알만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안타까움이 언제나 떠나질 않았다.

“왜 그대로만 만들고 있을까?”

그렇다고 도공들의 생활이 윤택한 것도 아니었다. 1백만~2백만원 나가는 도자기를 몇 개만 팔아도 잘 살 테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 판로와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안고 있던 것이다. 문화와는 다른 분야에서 일해왔던 이방인으로서 그는 도자기를 전혀 다른 컨셉트를 갖고 바라보았다.



△ 오세양 한국민예(주) 대표

‘등근 분청사기를 네모난 도판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문화상품의 고정관념을 깨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土花’다. 영문 브랜드로는 토가(Toka)라 정했다.

토가를 상품화 하기 위해 오씨는 97년 초부터 98년 말까지 2년여에 걸쳐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상품 기획에서부터 디자인·시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많았다. 도판의 물성이나 강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물론 문양과 컬러등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옛 도공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3일에 한번씩 다시 굽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만일 전통문양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저 흔한 타일로 전략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씨는 도자기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산업재가 될 수 있도록 규격을 통일했다. 현재 도판에다 그림을 그리며 작품활동을 하는 도예가들은 적지 않지만 오씨처럼 도판의 문양과 사이즈를 일정하게 하면서 산업재로 바꾼 것

은 처음이나 다름없다. 이는 공예가 대중적이지 못한 채 컬렉션화 되는 것에 대한 오씨의 반감이기도 했다.

### ‘문화를 담은 타일’ 산업재로 눈돌려

이런 피나는 노력끝에 99년초 첫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씨는 무엇보다 이 분청사기 도판의 판로를 시원스레 열어줄 돌파구로 ‘세계화’와 ‘산업화’를 꼽았다. 상품기획에서 부터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고 세계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상징물로 차별화를 기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약하다고 판단해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대량 생산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오씨는 우리의 옛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해 나가면서 눈에 익은 문양을 골라낸 후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갔다. 지금 오씨가 개발한 분청사기 도판의 문양은 국화·떡살·태극·단풍잎·경복궁 담장무늬등 우리 고유의 문양을 비롯,

### 한국민예(주)의 문화상품들

국화·떡살·태극·단풍잎·경복궁 담장무늬·자연풍경·일본 도자기 문양등. 분청사기도판 문양은 갖가지다. 규격 역시 2백mm×2백mm×12mm에서 부터 4백50mm×4백50mm×12mm등 다양하다. 전체 7종 60여가지. 또 하나의 문화상품은 술이나 음료수를 7부 이상 따를 수 없도록 투각한 의기( 樓). ‘마음을 다스리는 잔’이라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좋아라 한다고. 한세트에 12만원 정도. 옷칠을 한 포장용 상자 역시 그윽한 맛을 자아낸다. 상자 때문에 의기를 살 정도. 서울사무소 (02) 3411-8100





◁ 술이나 음료수를 7부이상 따를 수 없도록  
꽃문양으로 투각한 의기(義器). '마음을 다스리는  
그릇'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눈발에 눈이 녹다말고 희뜩희뜩하게 쌓여있는 듯한 자연풍경 문양, 그리고 일본을 겨냥해 디자인한 일본 도자기의 문양등 각양각색이다. 규격 역시 2백mm×2백mm×12mm에서 부터 4백50mm×4백50mm×12mm등으로 전체 7종 60여가지에 이른다. 분청사기 도판은 기존의 최상급 타일에 비해서도 30%정도 비싼 탓에 주로 고급 장식재로 쓰이곤 한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내 귀빈실과 연회실에도 사용됐다. 오씨는 이미 이 분청사기 도판 기술을 일본·중국·이탈리아·독일·영국·프랑스·미국등 해외 7개국에 특허출원해둔 상태로 지난해 3월 도쿄에서 열린 '빅사이트 건축·전자재전'에 국내 업체론 유일하게 참가해 큰 인기를 모은 가운데 일본 수출의 물꼬를 텄다.


이밖에도 오씨는 지난해 술이나 음료수를 7부 이상 따를 수 없도록 잔의 윗부분에 꽃문양으로 투각한 의기(義器)를 만들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잔은 우리 옛 이야기에 나오는 계영배와도 같은 잔으로 특히 정치인들이 선호한다고. 남녀를 상징하는 두개의 잔이 한 세트로 남자 잔은 큰데 반해 여자 잔은 작으데다 꽃문양 투각부분에 붉은 점이 찍혀져 있는게 특징이다. 모양과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표면에 학무늬가 그려져 있어 고풍스런 맛이 우러난다. 일본등지의 기업체에서 사은품으로 대량 주문하는데 한 세트에 12만원을 호가한다. 합성목에다 옷칠을 한 포장용 상자 역시 독자적인 문화상품으로 내놓아도 부족할 데 없을 만큼 그윽한 맛을 자아낸다. 상자 때문에 의기(義器)를 살 정도.

한국민예(주)는 분청사기 도판 하나로 지난해 8월 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굿디자인'을 인증받았는가 하면 새천년 한국을 대표하는 밀레니엄 상품으로도 지정됐고 11월에 벤처기업으로 승인받아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 한·중·일도자기 망라한 사이트 3월 오픈

이에 앞서 9월엔 창투사로 부터 6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현 이천공장에서 20여km 떨어진 부근에 10억원을 투자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공장 자동화시설을 갖춘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상에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6년 일찍이 3개국어로 국내도자기 사이트를 개설한데 이어 다시한번 올해 3월경에는 일본과 중국의 도자기까지 망라한 세계 도자기 사이트(www.koreafolkart.com)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수익을 올려보자는 것 보다는 글로벌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외래문화를 한발 앞서 접하면서 '양화(良貨)와 '악화(惡貨)를 가려내는 스크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부가적 효과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민예(주)는 앞으로 국립요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대형도판·기능성도판·청자도판을 생산해 나가는 한편 올해중으로 일본 프랑스 이태리등 해외 전시회를 교두보 삼아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을 만들어 작품으로 팔고 싶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의 문화상품관(文化商品觀)이다. 



## 설 · 대보름 민속놀이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우리** 나라 전통민속놀이는 216가지나 된다고 한다.

민속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 풍농(豊農)을 기원하는 놀이,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놀이, 개인의 복락(福樂)을 기원하는 놀이,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놀이, 겨루기놀이 등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또 놀이의 시기를 보면 1년내내 아무때나 즐기는 놀이가 전체의 반쯤 되고 다음이 명절놀이, 여름놀이와 겨울놀이, 어린이 놀이, 어른들의 놀이가 있다.

그런데 명절놀이는 전체의 40%가 대보름놀이이다. 우리의 명절놀이가 이처럼 대보름을 포함한 정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생활해온 우리 조상들에게 정월은 새해의 첫 달이고 더구나 대보름은 그 해들어 처음 달이 가득차는(滿月)달이어서 이를 매우 신성시 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한해동안 무병과 재수를 발원하여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였고 이에 곁들여 놀이를 즐겼다.

정월 설과 대보름 때 대표적 민속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웃놀이

웃놀이는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놀이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 전

통민속놀이이다.

정초에 온가족이 모이면 웃을 놀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었고 동네 마당에서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화합을 다졌다. 곳에 따라서는 산과 바다편으로 나누어 놀이를 펼치는데 육지쪽의 농사가 잘 될것인가 바다쪽의 어업이 잘 될것인가 내기를 하며 그해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였고 웃집을 치는 풍습도 있었다.

웃놀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가지 설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기원이나 유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국시대에 이미 성행했던 놀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웃놀이의 용어로 사용되는 도·개·걸·웃·모의 어원에 관한 설도 부여시대의 관직명에서 나왔







다는 설과 동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양설이 있다.

놀이기구인 옷은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른 손의 한 뼘만한 길이의 「가락옷」 또는 「장작옷」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새끼손가락 크리의 「밤옷」 은행알로 만든 「은행옷」 콩알로 만드는 「콩옷」 등이 있다.

### 연날리기

연은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에 띄우는 민속놀이로 종이에 가는 댓가지를 붙여 만들며 실을 꿰어 공중에 날리는 놀이이다. 이러한 연날리기는 음력 12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정초에 성행하다가 정월대보름 밤이나 정월 열나흘날밤에 액막이 연날리기로 끝맺는다. 이 놀이의 명칭은 삼국사기에는 풍연, 고려사와 조선시대 문헌에는 지연(紙鳶)이라 쓰고 있고 한글 표기로는 「연노히」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연놀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의미와 동일하다.

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3국이 으뜸이며 그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에 언급되고 있는데 진덕여왕 즉위 원년에 대신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김유신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연에 달아 하늘 높이 띄우므로써 장병들을 독려하여 반역의 무리들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에 연이 이미 일반화 되었으며 또한 놀이로서의 도구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이 이처럼 전

쟁에 사용된 예는 삼국시대이래로 많이 보인다. 동국세시기에는 고려말의 명장 최영장군이 탐라를 정벌할 때 연을 많이 만들어 불을 달아 올린 후 연줄을 끊어 적진을 불길에 휩싸이게 하여 공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설에는 이 때 병사를 큰 연에 매달아 적진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한다.

또한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통신수단으로 연을 이용하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연은 주로 액을 쫓는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겨울철부터 날리던 연에 정월보름이 되면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글자를 써서 해질무렵 연줄을 끊어 멀리 날려보내므로써 모든 액을 쫓아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은 신라의 김유신과 고려의 최영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을 거치면서 통신수단과 물품운반의 방편으로 사용되다가 차츰 민속놀이로 변하고 그것이 음력 정월의 큰 오락행사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 널뛰기

널뛰기는 음력 정초를 비롯하여 5월 단오, 8월 한가위 등 큰 명절 때 주로 행해지던 여성들의 민속 놀이다.



이 놀이는 두툼하고 긴 널빤지를 준비하여 그 가운데 밑에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뭉쳐서 고여 놓는다. 그리고 양쪽에 한사람씩 올라서서 한 사람이 뛰었다가 내리 누르는 힘의 반동으로 상대방이 뛰어 오르는데 이렇게 두사람이 번갈아가며 뛰어 오르기를 되풀이하는 놀이이다.

널뛰기의 유래에 대하여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려시대 여성은 매우 활달하여 기마나 격구 같은 것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널뛰기도 고려 여성들의 활달한 기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널뛰기의 기록은 「경도잡기」에 부녀들이 널빤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板舞)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최남선이 지은 「조선상식문답」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표적 놀이로 널뛰기를 들고 있는데 유구의 판무회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는 고려말기부터 조선조 중기까지 많이 왕래했던 유구의 사신과 상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아닌 가하는 추측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동남아시아 일대, 주로 해안과 평양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그 배경을 농경, 어로를 주로 하는 생활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는 중부이남지방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성행하던 곳은 경상도의 진주, 창녕, 안동, 경주, 등지이고 멀리서 제주도에도 까지 분포되어 있다.

최남선이 지은 조선상식문답에 줄다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정월 대보름 풍속에 짚 또는 칩으로 큰 줄을 수십발이나 되게 길게 꼬아 줄 양머리에는 수많은 작은 줄을 매달아 몇몇 마을이 둘로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 당기어 승부를 가린다.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고 말하는데 이것

을 줄다리기라고 한다.」

줄다리기를 할 때 줄을 당기는 두편을 각기 암줄 숫줄로 정하여 암줄 즉 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도 있다. 이 역시 풍요다산과의 밀접한 관계로 줄다리기를 남녀간의 성행위게 결부시켜 생산의 최종 담당자인 여성(암줄)편에 이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농경사회의 지신(地神)은 대부분 여신(女神)이므로 여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자편이 이기게 하는것으로 보인다.

## 다리밟기

음력 정월 대보름 밤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개천 도는 강의 다리위를 끝에서 끝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를 다리 밟기(답교놀이)라고 한다.

다리밟기에 대하여 동국세시기 정월 상원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장안 남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려고 종로4거리로 모여든다. 종소리를 들은 다음 흩어져서 여러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답교(다리밟기)라 한다. 혹 어떤이는 말하기를 교(橋)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리(脚)로 발음하므로 속담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의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답교는 주로 큰 광통교와 작은 광통교 및 수표교위에 행하였다.」

고려 때에도 있었던 답교놀이는 서울 지방, 특히 광교와 수표교에서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행되었는데 다리를 밟으면 사람의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1년동안 액막이를 한다는 주술적인 속신이 이 놀이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놀이는 자취를 감추었고 문화단체의 민속놀이 재현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옛것이 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달집태우기, 달맞이, 쥐불놀이 등 많은 대보름 놀이가 있으나 모두 옛날 것으로 실제로 놀아지지 않고 있다. ㉞

#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드디어 출간 CD롬 제작, 인터넷 서비스도 실시

편집부

**전국** 문화원연합회가 별도의 발간팀을 구성해 지난 1년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전6권이 드디어 나왔다.

## 동국여지승람 발간정신 되살려...

지난해 생산적 선진생활문화 교육사업과 함께 2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조선시대 문화의 황금기인 성종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이 전국 대상의 인문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을 귀감으로 그 발간 정신을 계승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성종12년(1481) 간행된 「동국여지승람」 서문에는 “물려받은 것과 보태야 할바를 증보하여 간행하라”며 후세에 꾸준히 우리 땅,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것을 당부하였

으나 그후 중종25년(1530)에 증보판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펴낸 이후 470여년동안 개정 증보작업이 중단돼 왔다.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이처럼 수백년간 맥이 끊긴 「동국여지승람」의 발간정신을 되살려 전국의 문화자원을 집대성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지방문화원의 역량을 축적하고 향토문화를 널리 알려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발간한 것이다.

## 민족문화 학습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

이 발간사업을 통해 기성세대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01 한국방문의 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2001 지

역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 자라나는 신세대에게는 민족문화에 대한 학습과 정체성을 기를 수 있는 장을 열어 줄 것이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각종 행사 및 문화상품 기획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인들에게도 좋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제작에는 전국 170여개 지방문화원에서 직접 원고를 집필했으며 일부 문화원과 시·군·구청에서는 향토사학자와 대학교수 등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이처럼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발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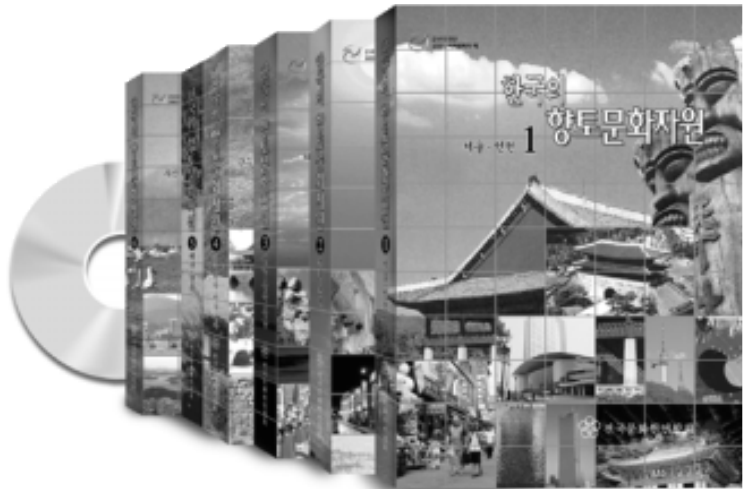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전6권은 ▲내 고장의 어제와 오늘(지역개황) ▲역사문화자원 ▲전통생활문화 ▲예술문화자원 ▲관

광·여가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등 6개항목과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알아보기 쉽게 편집되었다.

### CD롬 제작, 인터넷 서비스 예정도...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책자로 발간과 동시에 CD롬으로도 제작되었으며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21세기를 여는 첫해에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과 합심해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을 발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진으로 보는 평생의례

과천문화원 · 과천향토사연구회 제공

풀이슬(草露) · 화살(矢) · 유수(流水)....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에 대한 비유들이다. 사람이 땃줄을 끊고 '양'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옷한벌로 저 먼곳으로 떠날 때까지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 '낯선' 세상에서 한평생을 지낸다. 우리의 조상들은 미끈미끈한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 잠시동안 이나마 뒤를 돌아보며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저마다의 몫을 다하도록 했다. 바로 '평생의례' 다. 평생의례는 보통 산육의례 · 관례 · 혼인례 · 수연례 · 회혼례 · 상례 · 제례를 말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다. 하지만 이같은 관혼상제의 의례는 해방이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문화원(원장 박영재)과 과천향토사연구회(회장 최중수)는 최근 제3회 과천향토사료전 '사진으로 보는 평생의례' 라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중 옛 사진들을 중심으로 편집해 실는다. (편집자주)



## 기자(祈子)

부인들이 아들낳기를 기원하여 뽕죽한 바위(男石)에 고추, 숯, 솔가지를 매단 새끼를 감아놓고 치성을 드린다.



## 출생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 어머니의 땃줄을 끊고 독립개체로 태어난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인줄 · 금줄

아이가 태어난 후 부정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대문 등에 건 너질러 맨다.



### 백일

태어난 후 백일이 되는 날에 잔치를 한다. 실타래를 아이의 몸에 두른 것은 아이의 명이 길게 되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 돌

돌맞이하는 아이는 돌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준비된 돌상앞에 앉는다. 돌음식으로는 백설기·수수팥떡 등 장수와 무병, 부정을 막는 의미의 음식이 차려진다.



### 관례(冠禮)

15~20세된 소년에게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워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 계례(笄禮)

소녀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어 성인이 되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



### 납폐(納幣) : 함보내기

'선비는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뜻에 따라 신부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예전에는 하인이 지고 갔으나 근대로 오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얼굴에 검댕이 칠을 하고 함진아비 노릇을 했다.



### 신부에게로

장가들러 신부택으로 조랑말을 타고 가는 신랑의 진지한 모습과 고삐를 잡고 가는 마부의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신랑행렬

추운 겨울날 언덕길에 함진아비를 앞세운 신랑의 행렬.



#### 신랑의 미소

가마를 타고 신부댁에 도착한 신랑이 미소를 지며 가마에서 내린다.



#### 신부댁에 도착한 신랑

혼례를 거행하기 위해 신부댁에 도착한 신랑의 모습. 추운겨울 배석(拜席)위에 대례복과 사모를 쓴 채 서 있는 신랑.



#### 신부댁으로 들어서는 신랑

혼인예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댁 대문으로 신랑이 들어간다.



**신부집에서 거행되는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상위에 기러기를 드리고 있다.  
기러기는 신랑에게 가리워져 있다.



**수줍은 신부**

수줍어서 겨우 고개를 드는 신부.



**마주보는 신랑 신부**

동로상 앞에 마주 서 있는  
신랑과 신부.



**신랑신부 그리고 들러리**

요즈음은 보기드문 들러리와 함께 찍은  
신식혼인 기념사진.





### 회갑상(回甲床)

회갑을 축하하고 현수를 드리기 위해 차린 상으로 피는 음식은 계적에 따라서 또는 가풍(家風)이나 형편에 따라 다르나 음식의 가짓수와 피는 높이의 치수는 홀수로 했다. 회갑주 내외가 모두 생존한 경우 함께 앉아 큰 축하를 받는다.



### 헌주(獻酒)

회갑주가 헌주를 들고 있다.



### 헌수(獻壽)

회갑주의 자녀들이 부부동반해 회갑상 가까이에 나아가 큰절을 하고 부모에게 술잔을 올린다.



### 장고춤

회갑례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어린이(기녀, 무녀)의 장고춤 재롱이 벌어져 잔치 분위기가 한층 흥겨워진다.

### 칠순(七旬)

70세를 맞는 수연(壽筵)을 말하며 칠순 또는 희수(稀壽)라고도 한다. 희수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되었으며 본인 자신이 고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손들은 칠순이라고 말해야 맞는 표현이다.



### 회갑가족사진

회갑주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린이와 여성을, 오른쪽에는 남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초혼(招魂)**

사람이 죽은 직후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번 부르는 행위로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부름의 의식이다.



**사자밥**

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초혼이 끝난 후에 밥세 그릇과 망인이 신던 신발등을 채반이나 키에 받쳐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발인(發靱)**

상여(喪輿)가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음식을 차려 올리는 행사.



**근조(謹弔)**

사람이 죽으면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해 근조(謹弔)또는 기중(忌中)이라고 써서 대문 옆 등에 매단다.



**“언제 다시 볼까”**

발인(發靱)이 끝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집을 향해 돌아서서 절을 세 번 한다. 이 때 상주와 여인들이 같이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하직 인사이기 때문에 모두 슬프게 운다.



# ‘2001지역문화의 해’ 탐라도서 닷 올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 부터’ ‘함께 창조하는 지역문화, 함께 누리는 공동체문화’를 슬로건으로 한 ‘2001, 지역문화의 해’가 오는 3~4일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탐라도에서 주민과 어울리는 한바탕의 축제로 닷을 올린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중한)는 “21세기가 ‘지역문화’로 부터 시작됨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과거에는 변방이라고 일컬어진 제주지역에서 ‘입춘굿놀이’ 및 ‘들불놀이’ 행사와 현장 연계해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주의 입춘굿 놀이는 해방이후 사라졌다 부활된 지 3년째가 되는 민속축제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북제주군 애월읍에서 개최되는 들불축제 역시 손에 꼽히는 지역관광축제로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 부터’라는 불글씨가 쓰여지면서 하이лай트를 장식하게 된다. 추진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4일 문화관광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역문화컨설팅 지원등 ‘사람’·‘삶터’·‘어울림’을 주제로 하는 10대 기획사업과 엠블럼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18~19일 1박 2일동안 대전 유성호텔에서 1백명의 지역문화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방식으로 10대 기획사업의 첫 번째인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 부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중한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예술의 해’가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지역문화의 해’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쌍방향적 공동체문화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26명의 추진위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연고를 둔 인물들로 또 다른 ‘중앙의 지방 계몽’이라는 따가운 비판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이 1사분기가 지나서야 시작되는등 ‘준비 안된 지역문화의 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 기자회견내용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1월 4일 문화관광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20여명의 문화 관련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이중한 위원장이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답했고 세부적인 사항인 경우 강준혁 추





진위원과 박인배 추진위원이 보충 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인 상임추진위원과 노태섭 문화부 예술국장을 비롯 전통지역문화과·공보실 직원들이 참석해 원만한 진행을 도왔다.

**문 :** 1백개 내외의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축제와 별개인가?

**답 :** 기존의 것도 될 수 있고 요청에 의한 것도 될 수 있다. 중앙에서 선정을 해선 안된다. 또 축제만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다. 지역문화=축제라는 등식도 깨야 한다.

**문 :**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답 :** 예년의 경우 보통 10억이었다. 올해도 10억을 가지고 해야할 형편이다. 좀 더 끌어내고 싶지만 싶지만은 않다.

**문 :** 컨설팅에 대해 묻고 싶다.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

않는가?

**답 :**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경험 부족·아이디어 부족등의 문제를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활동 전반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 예컨대 시설운영등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획일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웹사이트등을 이용해 지역문화 인력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스로 지역문화 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체험하며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문 :** 컨설팅 사업의 대상은 확보됐는가?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답 :** 각 분야별 인력풀을 조성할 계획이나 그 밖의 상황은 컨설팅 요청에 응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경직된 인력풀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 대전서 열린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 1백명의 발제자 百家爭鳴식 의견 내놓아

류장수 편집주간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18~19일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2001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百家爭鳴)를 개최하고 문화의 세기 첫 해인 2001년을 지역문화로부터 힘차게 내딛는 첫출발을 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 각 지역문화현장에서 활약 중인 지역예술인, 학계인사, 문화행정가, 문화시설 운영자, 언론기관, 각종 문화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등 지역문화활동가 1백명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7개 분과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전개하고 다시 분과별 발표의견 요지를 종합하여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18일 오후2시 개최식은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이중한 추진위원장의 개회사, 김순 규문화관광부차관의 인사말, 권선택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중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이 시대의 세계적 화두 지역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 하기위해 모였다. 이 모임의 담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올해 내내 반복되면서 다듬어지고 기억되어 커다란 공감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창조성의 역량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 모두의 창조적 감수성에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하는 구조와 실현의 방법을 찾기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의 모임이 이러한 의제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썩크탱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첫 모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장을 당연히 연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거대한 변화에 거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창조적인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뜻을 모으고 격려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개회식

김순규문화관광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이며 급속한 정보화로 지구촌 생활양식이 유사해짐에 따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지역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고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 〈분과별 주제와 발제자 명단〉

(별표)

구분	주제	추진위원	발제자	계
제1분과 (2층 은하수룸)	지역문화의 이념 및 정책	강신표 이해경	김기봉, 김승환, 김윤기, 니경수, 문우병, 문병하, 문윤걸, 신대철, 이영환, 이재혁, 이해준, 이현식, 임정희, 전신재, 정갑영	15명
제2분과 (3층 에머랄드홀)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방안	김석만 김종현	김석범, 김성식, 류기형, 박종관, 심우성, 이인숙, 임진택, 임해순, 장유경, 지춘상, 최근식, 최상윤, 최준호, 홍인수	14명
제3분과 (2층 학실)	지역문화행정의 현안 및 대안	안진수 이진배	김문란, 김선희, 김인철, 김태중, 김흥선, 신광조, 우수홍, 이인권, 이한규, 장수봉, 정명숙, 정용기, 지금중, 허 황	14명
제4분과 (2층 금잔디룸)	지역문화시설의 현안 및 대안	김문우 김명곤 정중헌	김동영, 김동표, 김용관, 김은정, 김종우, 김진순, 문용휴, 박병인, 엄홍용, 원도연, 윤만식, 전병근, 정기용	13명
제5분과 (3층 루비홀)	지역문화활동의 현안 및 대안	박인배 안이영노	고승하, 김지원, 김하림, 김현구, 김호균, 김희규, 도종환, 박경숙, 안준영, 엄태석, 오테근, 이흥우, 임재해, 최재우, 최정완	15명
제6분과 (10층 라운지)	지역문화인력의 현안 및 대안	강준혁 최성자	강희철, 김경민, 김상철, 신길수, 신순남, 엄상빈, 엄상균, 이강은, 이걸재, 임호진, 전호관, 지형원, 현을생, 현춘식	14명
제7분과 (2층 프린스홀)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의 현안 및 대안	정강환 김명자 김종희	권용대, 고경재, 김성봉, 김춘식, 문동식, 민말순, 백옥선, 이상휘, 이종진, 임 호, 전보삼, 정목일, 조달호, 한림화, 한상수	15명
<b>계</b>				<b>100명</b>

추진중에 있다. 오늘 이행사는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지역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오신 전국의 지역문화예술인과 관계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21세기 문화의 화두는 첫째 문화의 대중화, 둘째 문화의 산업화, 셋째 문화의 정보화이다. 이제는 문화가 단순한 향유적 부수물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된 시대가 되었다. 오늘 1백명의 발제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의 핵심은 고유성과 세계성의 확립에 있다. 우리는 지역문화를 통해 세계화에 온 정력을 쏟아야한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권선택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적인 힘은 지역의 고유한 정신문화에 있으며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국력도 문화에 달려 있다. 과학문화의 도시 대전에서 지역문화의 해 첫사업인 대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편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이 끝난후 발제자 1백명은 각기 분과별로 모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분과별 주제와 발제자 명단은 별표와 같다.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첫날 발표를 하고 7시 30분부터는 대전광역시 시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이날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전에 내려와 홍선기 시장은 나오지 못하고 김의제 정무부시장이 대신 주관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첨단과학도시 대전으로의 여행'이란 영상물을 보고 만찬에 들어가 김의제 정무부시장의 만찬사, 이중환위원장의 답사, 강신표인제대교수의 건배제의 순으로 만찬이 진행되었으며 19일 조찬은 이병령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주관하였다. 전날에 이어 계속된 분과별 발제가 발표된 후 오전 11시부터는 분



△ 만찬

과별로 발제내용을 요약하여 1시간 30분간 발표하고 이번 행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분과별 발제요약 발표내용

#### ▲ 제1분과(발표자·강신표)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 분과위 토론(1분과)



논의하였다. ① 지역문화의 해 의미 ② 지역문화의 해 개념설정문제 ③ 지역문화사업 담당자 ④ 지역문화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서울 중심 문화에 대해 지방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를 가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또 지역문화의 담당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생산자, 문화활동가, 수요자가 서로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행정지원의 필요성,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예술 중심에서 생활문화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과 연계프로그램 제작, 문화정책 실용화·구체화 요구도 있었다.

#### ▲ 제2분과(발표자·김석만)

오늘의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예술 창작에 대한 환경조성 인식의 제고, 예산 증액 등 근본대책 마련, 지방의회에 문화예술계 인사 비례대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지역문화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교육과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문화상품의 직거래제도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은 지역예술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민간 예술단체와 지자체간의 유대강화, 문화예술인들의 지위향상 등도 제시되었다. 또 지역문화사업은 권역별로 실시하고 지역간 연대범위를 넓혀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 제3분과(발표자·안진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은 문화행정의 전문성, 예산배정, 유사지역축제 통합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 아

니라 치적을 보이기 위해 대형 시설물 건립, 백화점식 지역축제가 방치되고 있으며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변경되어 문화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또 문예진흥기금의 지방에 직접 지원·사업별 평가제 도입·지역문화정보센터운영·단체장에 문화마인드 동기부여·지방문화재단 설립·관 주도 지역문화사업의 민간주도 이양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문화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중 경주문화원장은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 제4분과(발표자·문용휴)

지역의 문화시설에 중앙의 질높은 프로그램이 공급돼야 문화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걸만 번지르한 대형시설물이 많아 실속이 없다(전국에 공연장 400여개). 또 문화공간의 실용성이 부족하다. 덩치만 컸지 실제 공연을 하려고 하면 부족한 시설이 많아 불편을 느끼게 된다. 문화의 집을 예로 들면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시설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다. 문화제의 보수, 개수에는 자격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문화공간 건립도 자격자제도를 도입 실용성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자격증제도는 국고지원으로 문화공간을 건설할 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면단위 문화공간의 표준모델을 문화부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문화공간 건설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복합형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금산의 경우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 농민의 집, 노인의 집, 장애인시설 등이 한곳에 신설되고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

#### ▲ 제5분과(발표자·박인배)

함양문화원 박경숙교학부장의 농촌형 지역문화

사업 실천사례, 인천·광주광역시의 도시지역문화의 사례, 김현구 서산문화원장·김희규 영암문화원장의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등 여러가지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지역문화사업의 향유자 중심 전개, 지역간 교류의 필요성, 지역배패주의 극복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지역의 생활현장을 사투리 그대로 가사화한 동요를 통한 노래운동에 대하여 발표한 고승하 마산·창원민예총회장의 발제가 주목을 끌었다면서 직접 고승하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 ▲ 제6분과(발표자·강준혁)

지역문화인력의 전문성 결여가 가장 강도 높게 지적됐다. 지역의 문화행정가는 물론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지도급 인사들도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사업이나 문화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세무직이나 보건직 처럼 문화직 공무원제도의 도입 ●기존 인력의 재교육 필요성 ●중앙의 전문교육기관 분원의 지방 설치(문화계 스텝 풀제도 시행) 등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 제7분과(발표자·정강환)

문화관광상품으로 각광받아야 할 지역축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많은데 특색이 없어 관광상품으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축제가 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그렇다고 민간주도의 경우는 예산상 애로 때문

에 문제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축제에 대한 용어의 통일문제, 축제와 테마관광, 문화상품과 문화자원의 연계, 축제에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문제, 지나친 상품화보다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축제를 지역간 연계하여 패키지화하는 문제, 축제 전문인력 확보문제(자격증제도 도입 등), 장기적 계획과 철저한 사후 평가제 도입, 지역축제 주체의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7개분과위 좌장들의 요약 발표가 있은후 이중한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행사의 막을 내렸다.

이중한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과제에 대한 공동인식이 제고되고 실천방안 마련이 목적이었으며 앞으로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가 모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내려간 참가자들은 대전시립미술관에 들러 고암 이응로 화백의 기획전시회를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다.☞



△ 7개분과의 토론요약 발표

# 민원으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민원이 있어도 어디로 문의해야할 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 지 몰라 애를 태울 때가 많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은 여타 민원보다 구비서류가 복잡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적잖이 겪는다. 최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나온 '민원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중 문화관련부에 해당하는 민원 업무 처리 정보를 용도와 함께 ①접수·처리부서(局·室·課) ②처리기간 ③구비서류 ④수수료 ⑤민원신청방법 ⑥근거법령 순으로 실는다 (편집자 주)

## 문화관광부

www.mct.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02)3704-9150

###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용도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①문화정책국 저작권과 ②15일 ③①신청서 ②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1부 ③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④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⑤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⑥저작권 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④10,000원 ⑤방문·일반우편 ⑥저작권법 제78조/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용도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대리 및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할 때 ①문화정책국 저작권과 ②5일 ③①신고서 1부 ②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1부 ③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④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⑤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⑥저작권 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1부 ④5,000원 ⑤방문·일반우편 ⑥저작권법 제78조/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8조

### 저작권 대리중개업 변경신고

용도 |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①문화정책국 저작권과 ②4일 ③①신고증 ②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3,000원

⑤방문·일반우편 ⑥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용도 |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교육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①예술국 공연예술과 ②20일 ③①신청서 1부 ②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④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1부 ⑤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1부 ⑥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9 및 별지 13의 12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용도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이 되고자 할 때 ①예술국 공연예술과 ②20일 ③①신청서 1부 ②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④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 ⑤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 및 별지 13의 14

###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또는 변경) 신청

용도 | 공연법에 의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수수료를 인가받고자 할 때 ①예술국 공연예술과 ②3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 제39조/동법 시행령 제10조

### 정기간행물 등록

용도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지정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는 제외) ①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특수주간 및 월간 이하 무가 간행물과 지역신문, 기타 간행물은 시·도에 등록) ②25일 ③①신청서 1부 ②발행인, 편집인 이력서 각 1부 ③발행인, 편집인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④정관 또는 규약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⑤시설이 자기소유(시설대여, 임대차)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 1부(일간신문) ⑥무선국허가증 사본 1부(통신사) ⑦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1부(통신사) ⑧인쇄계약서 사본 1부와 인쇄소 등록증명서 원본 또는 인쇄소 등록증 사본 1부(일간신문 제외) ⑨주주명단 및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 현황(일간신문 및 통신사) ④15,000원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동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문화산업 투자비율 인정신청

용도 | 문화산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문화산업 투자비율을 인정받고자 할 때 ①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②15일 ③①신청서 1부 ②당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③당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④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및 제4항/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1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용도 | 문화산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문화사업 투자분에 대해 인정받고자 할 때 ①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②15일 ③①신청서 1부 ②당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기재



한 서류 1부 ③당해 투자조합 또는 투자전문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④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및 제4항/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1

### 우수전통공예품 지정신청

용도 | 우수전통공예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①문화산업국 문화상품과 ②3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제품설명서 1부 ③견본품 또는 모형 1점 ④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없음(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 등을 하는 경우는 별도)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4

### 우수전통식품 지정신청

용도 | 우수전통식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①문화산업국 문화상품과 ②30일 ③①제품설명서 1부 ②견본품 또는 모형 1점 ③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④없음(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 등을 하는 경우는 별도)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4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02)398-5000

###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신청

용도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①사무국 협의교육과 ②10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3호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 허가신청

용도 |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5일 전 신청) 또는 민속자료를 복제하고자 할 때 ①국립중앙박물관 :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국립민속박물관 : 전시운영과 ②4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문화관광부령/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3조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02)535-4142

### 제출자료 보상청구

용도 |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①열람관리부 납본과 ②14일 ③①청구서 1부 ②도서관원 자료제출서 1부 ③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별지 10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신청

용도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하고자 할 때 ①열람관리부 납본과 ②5일 ③ \* ISBN ①신청서 1부 ②출판사 등록증 사본 1부 ③출판예정 목록 1부 \* ISSN ①신청서 부 ②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일반잡지) 1부 ③간행물 견본(창간 예정호는 표지, 목차, 판권지 사본)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및 별지 11

###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신청

용도 |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때 ①지원연수부 서무과 ②14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국유재산법 제24조/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3조

### 국립중앙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02)274-1151~8

### 공연용 의상 소품 대여신청

용도 | 공연단체 또는 공연자가 국립중앙극장 소유의 의상 및 대·소도구를 대여받고자 할 때 ①무대예술과 ②2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 제5조 (문화관광부령 제4호)

### 국립중앙극장 대관신청

용도 | 공연단체 또는 공연자가 공연을 목적으로 국립중앙극장 시설 (대극장·소극장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①공연운영과 ②15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 제4조(문화관광부령 제4호)

###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02)2188-6000, 6114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대관 허가신청

용도 | 미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장을 대관받고자 할 때 ①사무국 전시과 ②2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국유재

산법 제24조/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 제3조(문화관광부령)

### 국립현대미술관 촬영 허가신청

용도 |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술작품을 촬영하고자 할 때 ①사무국 섭외교육과 ②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 등 허가 사무취급 규정 제3조 (국립현대미술관 내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복제 허가신청

용도 |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술작품을 복제하고자 할 때 ①학예연구실 ②3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국유재산법 제24조/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39조(문화관광부훈령)

### 국립국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02)580-3333

### 국립국악원 대관신청

용도 |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국립국악원 시설(예악당·우명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①장악과 ②15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4조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6(02)734-1346

###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대관신청

용도 |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시설(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①관리과 ②15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복제 허가신청

용도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민속자료를 복제하고자 할 때 ①유물과학과 ②4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3조

### 영상물 등급 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산14-67, (02)2272-8560

### 외국영화 수입 추천신청

용도 | 외국영화를 국내상영을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 ①영화부 ②10일 ③①신청서 1부 ②녹음대본 한글 10부, 원문 1부 ③수입약정서 사본 1부 ④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1부 ⑤영화 프린트 1벌 ④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⑤방문·일반우편 ⑥영화진흥법 제6조/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6

### 영화 상영등급 분류신청

용도 |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할 때 ①영화부 ②27일 ③①신청서 1부 ②수입면장 사본 1부 ③녹음대본 10부 ④영화제작자의 동의서(복사 제작의 경우)1부 ⑤영화 프린트 1벌 ④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⑤방문·일반우편 ⑥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9

### 한국영상자료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02)521-3147

### 영화필름 등의 제출

용도 | 영화자료를 보전하고자 할 때 ①자료운영부 ②즉시 ③①제출서 1부 ②영화필름 1세트 ③대본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영화진흥법 제2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지 13

### 영화필름 등의 제출 보상청구

용도 | 영화필름 제출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①자료운영부 ②25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영화진흥법 제25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지 15

###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53, (02)520-8040

###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자 실무경력 인정신청

용도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그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 ①기획과 ②6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신청인의 이력서 1부 ③수료증 사본 1부 ④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검정기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5 및 별지 13 의3

###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 이수 인정신청

용도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그

실무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할 때 ①기획과 ②6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신청인의 이력서 1부 ③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인정에 필요한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④제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검정기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제14조/동법 시행령 제14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6 및 별지 13의 5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 합격 인정신청

용도 | 실무경력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을 인정받고자 할 때 ①기획과 ②6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신청인의 이력서 1부 ③영 별표 2의 4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영 제1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1부 ④검정기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⑤방문·일반우편 ⑥공연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7-3,(02)719-4897

###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진

용도 | 외국간행물을 국내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 ①외국간행물부 ②5일 ③①신청서 2부 ②신청간행물 목록 2부 ③무역업 신고필증 사본(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자에 한함)1부 ④2,000원(외국간행물이 20종 초과시, 초과분은 매10종마다 100원씩 가산)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5조/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지 4

### 외국간행물 기본제출에 따른 보상 청구

용도 | 기본제출된 외국간행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①외국간행물부 ②20일 ③①청구서 1부 ②청구금액 산정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지 6

### 외국간행물 기본 제출

용도 | 외국간행물의 기본을 제출하고자 할 때 ①외국간행물부 ②5일 ③①기본 제출서 1부 ②제출 간행물 목록1부 ③기본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지 5

### 문화재청

www.ocp.go.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042)481-4650

### 국가지정문화재(동신문화재)지정신청

용도 | 유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①유형문화재과 ②10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사진자료 1부 ③기타 지정관계 참고자료 1부 ④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첨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재보호법 제4조/동법 시행령 제3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촬영)여기신청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고자 할 때 ①유형문화재과·기념물과·궁원문화재과 ②5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3조/동법 시행령 제15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별지 17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신청**

용도 | 규정에 의행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문화재 수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 ①문화재기술과 ②4일 ③①신청서 1부 ②증명 사진 1매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기술자: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4/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기능자:동법 제18조의 7/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신청**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를 보유하여야 함) ①문화재 기술과 ②16일 ③①신청서 1부 ②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현황 1부 ③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④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⑤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⑥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8/동법 시행령 제8조의 4/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12

**국유재산 사용 허가**

용도 | 문화재청 관할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收益)하고자 할 때 ①기념물과(궁·능 관련은 궁원문화재과) ②14일 ③신청서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국유재산법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지 2

**영화촬영 허가신청**

용도 | 국유지인 궁·능·유적지 등에서 영화를 촬영하고자 할 때 ①궁원문화재과, 궁·능관리소 ②4일(비공개 또는 제한공개 지역 촬영이나 야간 촬영의 경우 20일) ③①신청서 1부 ②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③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1부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지역, 야간촬영 허가신청시에 한함)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팩시밀리 ⑥국유재산법 제24조/문화재보호법 제20조/동법 시행규칙 제18

조 제2항/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4조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용도 |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①유형문화재과 ②30일 ③①신청서 1부 ②보험증서 1부 ③소유자 동의서 1부(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④국외 반출 문화재 목록 1부 ⑤전시계획서 1부 ⑥약정서(협약서)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별지 20

**문화재의 국가관리·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상 신청**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가관리 또는 국가명령 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사람(소유자·관리자)이 이를 보상받으려 할 때 ①유형문화재과 ②15일 ③①신청서 1부 ②증빙서류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재보호법 제30조/동법 시행령 제23조

**보상금 청구**

용도 | 문화재 수출 등의 죄,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문화재 도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을 조사기관에 체포한 사람과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할 때 ①유형문화재과 ②20일 ③①사건의 확정판결문 등본 또는 기소유예 증명서류 1부 ②공적사실 입증서류 1부 ④없음 ⑤방문·일반우편 ⑥문화재보호법 제67조/동법 시행령 제41조/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57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 전국문화원연합회

### 2001 제1차 이사회 · 제40차 정기총회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1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의안은 △

2000회계년도 사업실적및 결산(안)승인의 건 △2001회계년도 사업계획(안)및 예산(안)승인의 건 △제40차 정기총회 개최승인의건 등 3개안으로 전부 의안대로 통과했다. 한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월31일 오전 1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안은 2000년도 사업실적결산 및 2001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대한 승인과 함께 임원보선의 건이 상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

###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발간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최근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총 6권을 펴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이와함께 이용이 편리하도록 CD롬을 발간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서비스한다. (관련기사 40면)



### 서울특별시

#### 용산문화원

#### 이광래 신임 사무국장

용산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이광래씨(前 용산구 서기관)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 부산광역시

#### 금정문화원

#### 금정문화원 개원기념 금정미술인전

▷일시 : 2000년 12월 14~20일  
▷장소 :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 화천문화원과 자매결연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화천문화원에서 금정문화원과 화천문화원간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거행됐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1일 금정문화회관 귀빈관에서 개최된 '금정문화인의 밤-신년교례회' 행사에는 자매결연 답방형식으로 화천문화원 조규영원장을 비롯한 6명의 화천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조규영화천문화원장은 축사에서 "부산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관문이며 화천은 통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두 곳의 문화원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문화원은 첫 교류사업으로 오는 6월 화천에서 열리는 비목문화제에서 금정문화원 문화예술연구소 회원들이 공연키로 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 문화원소식

## 2000결산 부산지역댄스팀 쇼다운대회

금정문화원에서는 청소년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부산지역댄스팀 쇼다운(배틀-battle)대회'를 1월 31일 오후 2시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2000년 한해동안 각종 댄스대회에서 입상한 20여팀을 한자리에 모아 배틀(경연)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지역 댄스팀은 전국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금정문화원에서는 청소년 놀이문화의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는 댄스대회를 공연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부상이 주어지며 입상권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

#### 달서구문화원

## 3대가 살아온, 살아가는 이야기들...(생활사비교전, 솟대조형전)

▷기간 : 2001년 1월 18(목)~2월 24일(토)

▷장소 : 푸른방송 갤러리

▷문의 : 달서구문화원

▷내용 : 「3대가 살아온,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00년 5

월 개원한 달서구 문화원의 초대 원장인 조정제님과 3대에 걸친 가족들이 출품한 100여 점의 소장품과 700여점의 솟대조형품으로 마련됐다.

### 광주광역시

#### 서구문화원

## '서구사랑' 한마음 위안공연

▷일시 : 12월 29일

▷장소 : 서구문화센터

▷내용 : 관내 영세노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대접과 함께 북·판소리·전통무용 등 위안공연을 개최했다. 이정일 광주서구청장등 주요인사와 주민 9백여명이 참석했다.

### 강원도

#### 삼척문화원

##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 밤

▷일시 : 2000년 12월 28일

▷장소 : 문화사랑방

▷인원 : 기관단체장 및 회원 약 120명

## 생산적 선진 생활문화 강연회(2회)

▷일시 : 2000년 12월 4일

▷장소 : 삼척여고 대강당

▷인원 : 약 300명

▷강사 : 이노미(여행전문가)

## 제2회 「조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시상식 및「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일시 : 2000년 12월 23일

▷장소 :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인원 : 시상자 및 관람객 약 300명

### 충청북도

#### 보은문화원

## 제2회 보은 속리산 전국관광사진 공모 작품전시회

▷일시 : 2000년 12월 9~13일

▷장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삼척문화원



충청남도

충청남도지회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연수회 가져



향토 문화 축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의 축제 방향을 모색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새로운 이벤트

문화축제 개발을 위해 마련된 워크샵이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김현구)주관으로 2000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보령시 남포면에 소재한 동백관에서 실시됐다. 충남도내 시군문화원 관계자와 향토축제를 담당하는 단체 및 시군 관계자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워크샵은 도내에서 지난해 개최된 향토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축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열린 41종의 향토축제 중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한 9개축제의 사례를 발표해 경쟁력있는 우수프로그램 및 제도개선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첫날인 21일에는 문화관광부 축제담당 박형동 서기관과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중한 회장이 각각 '한국 방문의 해와 향토축제 정책방향', '향토 축제와 문화복지 증진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22일에는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강환 교수의 '축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21세기의 향토축제 방향'과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이각규 소장의 '지역이벤트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사례발표에는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서천모시축제, 공주백제문화제, 청양장승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예산의 매헌문화제 행사의 사례발표가 곁들여져 진행됐다. 한편 행사장 한편에는 15개 시군 축제 홍보물을 전시하는 등 다채롭고 내실있는 워크샵이 되도록 힘썼다.

천안문화원

제7회 수채화전

▷일시 : 2000년 12월 28일  
▷장소 : 천안문화원 전시실

서산문화원

환경실태체험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장소 : A·B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대상 : 부석 고등학교 학생 (250명)  
▷내용 :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된 환경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직시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원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서산지역의 환경관련 시설물 및 오염현장을 탐방하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교양강좌

▷일시 : 2000년 12월 13일  
▷장소 :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대상 : 서산관내 노인  
▷내용 : 실버사회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 노인들이 해야할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가족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강연회를 개최.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행사

▷일시 : 2000년 12월 14일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대상 : 서산 시내 신청 학교



# 문화원소식

(800명)

▷내용 :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전라북도

김제문화원

### 문화학교 작품전

▷일시 : 2000년 12월 19일  
▷장소 : 김제문화원 전시실

## 전라남도

목포문화원

### 김정환 신임 사무국장

목포문화원은 최근 공식중인 사무국장에 김정환씨(54)를 임명했다.

영암문화원

### 전국순회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개최 및 마을훈장 위촉장수여식

▷일시 : 2000년 12월 14일  
▷장소 : 군민회관  
▷인원 : 500여명참석

### 유명작가와와의 만남(박철시인)

▷일시 : 2000년 12월 19일  
▷장소 : 문화원 공연장  
▷참석자 : 영암여고생 300명

### 제3회 군민예술제

▷일시 : 2000년 12월 20일  
▷장소 : 공연장, 전시실  
▷참석자 : 기관단체장, 이사, 문

회원수강생 500여명

진도문화원

### 창작 민속극 '진도에 또하나 고려있었네'

▷일시 : 2000년 12월 13~15일  
▷장소 :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 경상북도

경상북도지회

### 제7회 경북향토민요경창대회

▷일시 : 2000년 12월 14일  
▷장소 : 의성군민회관  
▷내용 : 이날 대회에서는 '구미발갱이들소리'를 부른 이숙원씨(구미시)등 4명이 대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최우수상 = 이영순 등 4명(경주시). ·우수상 = 육창수 등 2명. ·장려상 = 송옥자(문경시) 허영자 등 13명(의성군). ·노력상

=사공수현 등 6명(군위군) 이종택 등 4명(구미시)

안동문화원

### 안동문화원 문화학교 종합작품전

▷일시 : 2000년 12월 11~14일  
▷장소 : 안동문화원 전시실

문경문화원

### 문화유적 탐방기행

문경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이창교원장의 인솔하에 문화가족연례행사인 문화유적탐방 순례행사로 행주산성을 다녀왔다.

문화원 가족들은 우뚝 솟은 행주대침비를 비롯 우리 조상들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 겨울방학을 이용한 충효예절교실

▷일시 : 2000년 12월 28~30일(3일간)



▷장소 : 문경문화원 다목적실  
 ▷내용 : 어린이에게 예절바른 생활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고향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문화 중심으로 강좌를 개최했다. 참가 학생에게는 교재로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성균관刊)」과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전국문화원연합회)」, 제26회 학도 문화예술대회에서 입상 우수 작품집, 학용품 및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칠곡문화원

2000년 칠곡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일자 : 2000년 12월 27일  
 ▷장소 : 칠곡군민회관 2층  
 ▷내용 : 칠곡문화학교에서는 2000년 칠곡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학교 수강생중 총167명이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운영기간중 우수한 출석률과 자율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수강생(정경자, 황영숙)을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했다. 작품발표회는 한국무용(수진춤, 장고춤, 태평가), 사물놀이, 차밍디스

코와 함께 한학교실반에서 수강생 전원이 명심보감 입교편을 낭독하기도 했다.

울릉문화원

대구동구팔공문화원과 자매결연 조인식

울릉문화원은 2월 2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대구동구팔공문화원과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는다. 또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가족마당극 '호랑이 이야기' 등 축하공연도 가졌다.

경상남도

진해문화원

2001년 신사년 새해맞이 진해발전기원제

▷일시 : 2001년 1월 1일  
 ▷장소 : 진해천자봉 만장대  
 ▷내용 : 2001년 신사년 새해맞이 진해발전기원제를 1월 1일 진해천자봉 만장대에서 진해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진해시가 주최하고 진해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진해교육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미술협회 진해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진해문화원 소속 천자봉풍물패와 고전무용단의 길놀이와 기원무,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각자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시간과 김병로 진해시장의 기원문 낭독, 축시낭송, 만세삼창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에서는 시민사진 촬영대회를, 미술협회 진해지부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맞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다.

2000년도 진해문화원 문화학교 제3기 합동수료식



▷일시 : 2000년 12월 19일  
 ▷장소 : 진해시민회관 대공연장  
 ▷내용 : 2000년도 문화학교 제3기 합동수료식이 수료생 278명과 김병로 진해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그리고 수료생 가족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수료생들은 1년 과정으로 9개과목을 수료했다. 진해문화원은 서예, 유화, 수채화, 수묵화 등 수료생 작품 76점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선보였다.

통영문화원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통영문화원은 지난해 12월 30일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영문화원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

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통영문화원에서는 통영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제19회 시장기타기 통영전통연날리기대회 및 민속놀이경연대회

통영문화원은 2월 6~7일 이틀간 제19회 시장기타기 통영전통연날리기대회 및 민속놀이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향토문화의 의식고취와 애향심 함양을 통한 범시민적 일체감과 화합을 이루는 전통향토문화창달에 기여코자 마련된 이날 대회에서는 통영전통민속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이 열렸다.

한편 통영문화원에서는 한국해양소년단 통영거제공성연맹단체를 후원, 제8회 청소년 민속놀이한마당 및 범시민 달집태우기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와 각종 세시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문화원

## 겨울방학국악특강 수료

▷일시 : 2001년 1월 19일  
▷장소 : 김해문화원 강의실  
▷내용 : 김해문화원은 겨울방학

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국악특강을 1월 19일 한 달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수료했다. 이번 특강에는 단소반과 사물놀이반의 총 50명이 참여했다.

## 제7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일시 : 2001년 2월 7일 오전 11시~오후8시

▷장소 : 김해공설운동장

▷내용 : 김해문화원은 오는 2월 7일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김해시와 함께 제7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한다. 제1부의 경연행사로 읍, 면, 동, 동호회 대항 자치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경연을 시행하고, 제2부 공연행사로 농악놀이, 고전무용, 민요, 판소리, 김해오광대 등의 공연과 제3부의 달집태우기 행사에는 대보름 달이 떠오름과 동시에 한해의 풍년과国泰민안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올리고 달집태우기를 하며 농악, 강강술래 등으로 신명을 나눈다. 이날 참가한 시민들에게 전통 세시풍속인 부럼과 귀밝이술을 나누어주며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명절을 잇는 계기를 마련한다.

의령문화원

##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의령문화원은 지난 1월 19일 군

민회관회의실에서 200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 안건은 2000년 결산안의 승인과 2001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이어 새해에 중요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정기총회 개최문제와 새 회원의 입회승인, 자문위원 추대등 당면 현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설을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5만원을 즉석에서 모금해 의령군수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

제주도지회

## 정기총회

▷일시 : 1월 27일  
▷장소 : 도지회 사무실

제주문화원

## 정기총회

▷일시 : 2월 10일  
▷장소 : 문화원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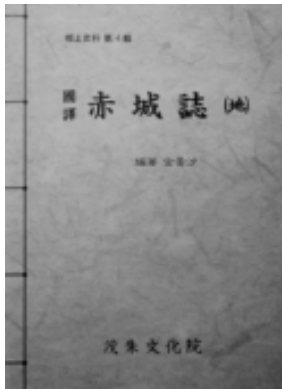
서귀포문화원

## 출향 및 유망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일시 : 1월 30일  
▷장소 : 서귀포 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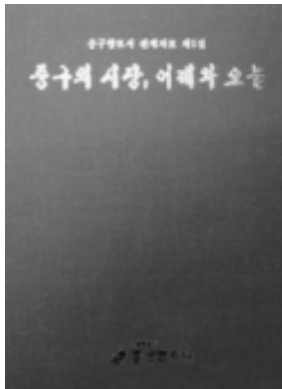
## 國譯 赤城誌(地)



「적성지」는 무주의 인문지리지다. 무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 기록이 (天)과 (地)편으로 쓰여져 전해져 온것을 누구나 알기쉽게 한글로 번역하였다. (天)편은 이미 번역본이 출간되고 이번에 (地)편이 완역되어 출간한 것이다. 원문을 싣고 그 밑에 번역문을 게재했다. 4×6배판 416면 김경석 편저.(무주문화원)

「적성지」는 무주의 인문지리지다. 무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 기록이 (天)과 (地)편으로 쓰여져 전해져 온것을 누구나 알기쉽게 한글로 번역하였다. (天)편은 이미 번역본이 출간되고 이번에 (地)편이 완역되어 출간한 것이다. 원문을 싣고 그 밑에 번역문을 게재했다. 4×6배판 416면 김경석 편저.(무주문화원)

##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있다. 4×6배판 양장본 316면 (서울중구문화원)

서울 중구문화원이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5집으로 발간한 책이다. 시장이 형성되기까지(조선시대, 개항기, 일제침략기, 광복이후)와 중구의 전통시장(남대문, 중부, 평화, 홍인시장 등), 새로운 쇼핑타운, 부록으로 구성되었는데 1900년대 사진까지 수록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꼽히고

## 꽃잠자리

진해문화원이 내고장 문화유산 그리기와 독서감상문을 공모해 그 중 입상작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사생작품 중 대상을 받은 동진중 1학년 정유진의 성홍사 그림의 47편의 그림과 독서감상문 초등부 장원 덕산초등교 6학년 이슬기의 「검둥이 톨의 오두막집」을 읽고 등 32편의 글이 실려 있다.(진해문화원)

## 竹窟全書

「죽유전서」는 조선조 중엽 퇴계 문하에서 성리학을 전수한 죽유 오운선생의 저술중에서 동이찬요와 문집, 유목을 합철한 전서인데 이것을 국역 원문과 함께 실었다. 오운선생은 광주목사 겸 춘추관 편수관 성균관 사성을 역임했고 임진왜란 때는 망우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격퇴했다. 4×6배판 양장본 874명(고령문화원)



## 京畿鄉土學(제5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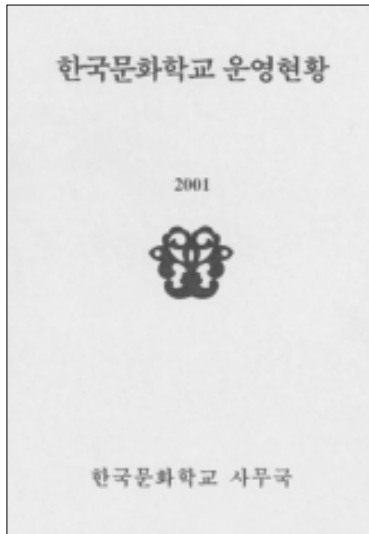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펴낸 향토사 논문집이다. 이



책에는 문화원연합회 향토문화연구회보다 향토사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지회가 다섯번째 발간한 논문집이다. 4×6 배판 416면 (전국문화원연합회 연구논문이 게재돼 있다. 어느지 경지도지회)



## “한국문화학교 운영현황” 발간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은 지난 1년 동안 268개 지역문화학교의 운영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배판(257페이지)으로 발간된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문화학교 연혁, 한국문화학교 현황, 2001년도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침, 한국문화학교 주소록(2000년 12월 신규 지정 문화학

교 포함), 2000년도 문화학교 사업실적 및 각종 문화학교 운영에 필요한 서식이 담겨 있다. 금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각 문화학교별로 강좌명, 강좌내용, 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등으로 구분된 상세한 사업실적이 담겨져 있어 지난 1년 동안의 문화학교별 사업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화학교별 강좌명 및 강좌내용을 통해 각 문화학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인접지역 문화학교와 중복되는 강좌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본 자료집은 400부 한정판으로 발간하여 지역문화학교(총 307개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동 자료집의 파일은 한국문화학교 홈페이지(www.kcs.or.kr)자료실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문화학교 김종열)

## 平昌郡 地名由來

평창군 1읍 7면의 마을 지명 유래를 조사해 게재한 책이다. 땅 이름에는 조상들이 살아온 언어와 풍습, 그리고 전설과 토속신앙까지도 간직하고 있어 향토사연구의 초석이자 보고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군 지명유래’ 발간은 매우 값진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신국판 292면(평창문화원)

## 향토사료조사 제4집

### 인천의 설화

이책에는 인천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설화 50편을 조사 수록하였다. 삽화를 곁들여 편집한 이 설화집은 구비문학으로서 향토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부록에는 문답식으로 풀이한 향토사 사료가 실려 있다. 4×6배판 228면(인천문화원)

##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 문화유성(2001년 1월호)

유성문화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류혜상대전지회장의 '지역문화의해에 바란다' 글을 위시해 유성문화원 기공식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또다른 우리 이웃, 해외문화유적답사, 벤처의 요람, 영상산책, 한국문화상징 등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다양하게 실려 있다.(유성문화원)

## 야호 코리아 2001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한 홍보 만화책이다. 2001 희망의 길을 연다. 정보화 세상, 병영일기, 지구촌 사람들, N세대의 전래동화 등이 만화로 제작되어 실려 있다. 4×6배판 66면(국정홍보처)

## 길없는 길목에서

천안여류시동인회에서 펴낸 여류시동인회 사회집(5)이다. 안수환의 '물망초를 보세요' 등 20명의 시가 실려 있다. (천안 여류시인동인회)

## 동량유치진·청마 유치환의 출생지 조사연구-거제출생에 관하여-

우리나라 연극계 거목 동량 유치진과 우리 시단에서 크게 활약한

청마 유치환은 친형제간으로 통영출신이다. 그런데 거제에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어 이것을 추적 조사한 글이다. 거제시가 출간했

다.(거제시)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가 펴낸 군지 상권이다. 이 책은 총설·역사·문화재·민속·인물편으로 편집돼 있다. 연천군의 역사와 지리가 총망라되어 있다. 앞페이지에는 연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컬러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국배판 양장본으로 1192면이다 (연천군사편찬위원회)

## 教英義塾 同筵錄



우산 신종묵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글을 모은 사제 문집이 「동연록」이다. 1세기전에 과천 일원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선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향토자료이다. 한문으로 된 것을 이충구씨가 국역해 간행한 것이다. 4×6배

판 64면 (과천문화원)

## 이달의 정기간행물

- 春州文化 제15호(춘천문화원)
- 第一江山 제16호(강릉문화원)
- 魯城의 脈 제15집(평창문화원)
- 오산문화 제19호(오산문화원)
- 뜻모아 소리모아 2000. 12(국정홍보처)
- 仁川文化 제79호(인천문화원)
- 교통 산업 제32호(교통산업신문)
- 문화가족 2000 가을호(진해문화원)
- 천안문화 2000 겨울호(천안문화원)
- 수원사랑 200.12(수원문화원)
- 天安文學 2000. 겨울(천안문화원)
- 梁山文化 제11호(양산문화원)
- 스산의 숨결 제206호(서산문화원)
- 문화정책개발원소식 200.11.12(대전중구문화원)
- 향토문화 제12집(향토문화사랑회)
- 清原文化 제9호(청원문화원)
- 문화유성 2000.12(유성문화원)
- 메세나 2000.겨울호(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민족예술 2000.12(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갑천문화 제6호(대전서구문화원)
- 레일로드 200.1(철도방송)
-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93호(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민속소식 제64호(국립민속박물관)
- 세계무속신문 제7호(무속신문사)
- 문화공간1 제202호(세종문화회관)

### ‘統營藝術’ 창간호 펴내



한국예총통영지부가 펴낸 ‘統營藝術’ 창간호로 ‘생명과 시인 청마 유치환’ ·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획특집으로 다뤘는가 하면 ‘통영 예술의 어제와 오늘’ · ‘통영예술 문화연표’ · 대형문화 공간을 찾아서 (1) 통영시민문화회관 규모와 운영 실태 등도 실어 내용을 알차게 했다.

248페이지.(한국예총통영지부)

### 의령문화원소식



의령문화원은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해 문화원 소식지를 발행 배부했다. 총8면중 1면에는 제7대 원장으로 재선된 허원장의 취임인사와 연하장, 향토문화유적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 놀이를, 6면과 7면에는 각종 행사 사진, 8면에는 건전 생활문화 캠페인으로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가꾸어야 할 것 등 42개 항목을 각각 소개 했다.(의령문화원)

### 청주문화



‘내가 본 청주, 내가 바라는 청주’를 주제로 차범석(대한민국예술원회장) · 김수용(영화감독) · 박재식(수필가) · 김영수(문학평론가) · 유창종(대검강력부장) 등 저명 인사의 청주에 대한 소감을 권두칼럼으로 실었다. 또 기획특집 ‘청주문화의 새지평을 여는 조용한 긴급동의’, 인터뷰

‘청주를 빛낸 사람들’도 눈길을 끈다.(청주문화원)

# 峨嵯山에서의 古代史의 諸問題 ①

## 1. 序論

峨嵯山은 古代로부터 漢江 南邊의 비옥한 충적평야를 지켜 왔던 漢江 北岸의 관방체제였다. 그러한 峨嵯山의 보호 아래서 漢江의 南邊은 古代史上에 커다란 足跡을 남겼던 사실들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峨嵯山의 관방체제는 문헌사료의 영성하므로 말미암아 심도 있는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나마 문헌사료의 어휘 중에는 판각상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古代史 정립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대표적인 것은 阿且(차)城·阿且(단)城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地名들은 위치 비정에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古代 三國史의 정황을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本稿는 문제의 핵심이 되어 왔던 阿且(차)城 또는 阿且(단)城의 지명유래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역사의 정황에 따른 阿且(단)城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제공될 것이다.

漢江下流에서의 三國의 각축은 高句麗의 남진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高句麗의 남진정책의 소산인 南平壤은 여러 地理志에서 漢江下流의 以北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高句麗인들이 장기간 集居한 흔적들은 峨嵯山 일대와 漢江 南의 漢城에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日本書紀』 欽明天皇紀에서는 百濟는 聖王 때에서야 비로소 高句麗의 소유였던 漢城과 平壤을 되찾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三國史記』 百濟本紀에서는 그 이전의 東城王이 漢城 일대를 발판으로 하여 황해도 내륙인 禮城江上流까지 진격하여 高句麗와 항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高句麗의 南平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高句麗의 南平壤은 문헌사료의 비판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명료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 列傳의 溫達傳은 漢江流域을 회복하려는 高句麗의 의지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가 兩國의 本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또한 미천한 온달이 계급사회인 高句麗에서 平岡公主와 결혼할 수 있었



김민수(金玟秀)

고려대학교 국어국어국문학과 졸업. 前고등학교 교사. 광진문화원 향토분과위원장. 논문으로 「나당연합군 백제 정벌 루트의 재검토」, 「고조선의 시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外 다수가 있다.



다는 것도 미심쩍다. 따라서 溫達傳이 『三國史記』를 저술한 당시의 高麗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峨嵯山에는 百濟時代의 阿且(且)城과 新羅時代의 北韓山城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城名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하나의 城의 전승관계에 연유한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城이었는데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大東輿地圖』는 峨嵯山에 두 개의 城郭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城郭에 대하여 『大東地志』는 하나는 漢江北岸의 楊津城이고 다른 하나는 峨嵯山 정상에 있는 峨嵯山古城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城郭과 百濟의 阿且(且)城·新羅의 北韓山城의 관계도 규명되어야 한다.

## 2. 峨嵯山の 지명 유래에 대하여

峨嵯山の 명칭은 『高麗史』·『世宗實錄』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近朝鮮 이전부터 이미 사용한 명칭일 것으로 추정된다. 峨嵯山の 위치는 『大東輿地圖』에서 지금의 한강하류 北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사적 제234호인 阿且山城(以下 사적 阿且山城)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阿且城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責稽王 즉위년 조에서 '高句麗의 침입을 대비하여 阿且城을 수리하였고 蛇城을 쌓았다.'는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따라서 阿且城은 扶餘百濟가 건국한 A.D. 286년 이전부터 있어 왔던 城이다. 또한 高句麗의 長壽王이 漢城百濟를 공략하고서 蓋鹵王을 참살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지금의 峨嵯山에 삼국시대의 阿且城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阿且城은 高麗時代에 편찬한 『三國史記』에서, 峨嵯山은 近朝鮮 때의 各古書에서 언급되고 있다. 두 지명은 같은 지역에 있었고, 국어음으로써도 같다. 두 지명이 연관이 있다면, 명칭의 전래는 時差上 阿且城(山)에서 峨嵯山으로 변한 것이다. 阿且城의 '阿'는 檀君王儉의 도읍 阿斯達의

첫 글자로 쓰일 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신성한 어휘이다. 이러한 '阿'의 지명개념은 한강 하류를 阿利水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阿利水는 한강하류에만 국한된 명칭이 아니었다. 『日本書記』에서는 慶州의 兄山江까지도 '阿利那禮河'라고 하였다. 阿且山과 국어음으로 같은 옛 지명은 전라남도 나주군의 '阿次山郡'이 있다. 또한 峨嵯山은 충청남도 홍성군에도 있다. 따라서 阿且山 혹은 峨嵯山은 고유한 지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阿利水의 다른 표기는 郁里河이다. '利'와 '里'는 국어음에서도 같지만 중국의 두 가지 발음표기에서도 'i'로 같다. 郁里河의 '郁'을 음讀하면 '옥'이다. 阿利水의 '阿'를 달리 음독하면 '옥'이다. '阿'와 '郁'은 국어음의 借字表記이다. 따라서 '阿(옥)'과 '郁(옥)'은 音似로써 연결되고 있다. 阿利水를 '옥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漢江下流의 윗 강변 곳곳에 玉水洞(서울)·沃川(구리시)·玉泉面(양평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도 방증된다. 沃沮城에 玄勤郡治가 있었다. 달리 東沃沮도 있었다. 沃沮城의 '沃'은 阿且城의 '阿'의 다른 음독인 '옥'과 같다. 뿐만 아니라 '沮'와 '且'의 공동 국어음은 '저'이다. 중국의 발음표기에서도 '沮'와 '且'의 웨이드식 표기는 'chu'이고, 병음표기에서는 'ju'로 모두 같다. 따라서 阿且城은 국어음으로서는 '옥저성'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이러한 阿且城(沃沮城)은 여러 지역에 두루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阿且城(山)은 어떠한 연유로 峨嵯山으로 변하였을까. 『三國志』 辰韓傳에서 朝鮮(樂浪)사람들은 '我'를 '阿'라고 한다고 하여 '阿殘'이라고 능멸하였다. '阿'는 우리(我)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句(句麗)·居(簡位居)·且(阿且城)·沮(沃沮城)·竹(孤竹國)·渠(右渠)·雛(古雛加)'의 어휘들은 고향을 표상한다. 따라서 阿且城(沃沮城)은 '우리(我)들의 고향(且)의 城'이다. 『三國遺事』의 阿斯達의 '達'은 땅의 借字表記이다. '斯'가 어조사이므로 '阿斯達' 또한 '우리의 땅'인 것이다. 『三國志』 辰

峨嵯山에는 百濟時代의 阿且(且)城과 新羅時代의 北韓山城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城名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하나의 城의 전승관계에 연유한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城이었는데 하는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大東輿地圖』는 峨嵯山에 두 개의 城郭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城郭에 대하여 『大東地志』는 하나는 漢江北岸의 楊津城이고 다른 하나는 峨嵯山 정상에 있는 峨嵯山古城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城郭과 百濟의 阿且(且)城·新羅의 北漢山城의 관계도 구명되어야 한다.

韓傳은 ‘阿’와 ‘我’가 訓(뜻)으로 같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近朝鮮의 각 古書들의 찬자들은 ‘阿’와 ‘我’가 국어의 공동음인 ‘아’로써만 같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近朝鮮은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주의이다. ‘阿殘’의 비칭인 ‘阿’를 꺼린 것이다. 아마도 『三國遺事』의 阿斯(達)가 中國史家의 견지에서는 오랑개의 개념이므로 이와 대칭되는 廉斯(人)로써 漢族을 표상한 『後漢書』의 표기를 유념한 듯하다. 따라서 ‘阿’ 대신에 ‘我’로 바꿨다. 또한 ‘山’의 지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山’邊을 첨가하여 ‘峨’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且(차)’와 ‘且(단)’의 판각상의 혼동을 구별할 수 있게 ‘差’로 바꿨고, 마찬가지로 ‘山’邊을 덧붙여 ‘嵯’라고 하였다. 따라서 峨嵯山은 沃沮山(옥저산)의 다른 음독으로 판단한 誤記며 뜻 또한 訛傳되었다.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阿且(단)城은 ‘옥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阿且(차)城과 阿且(단)城의 표기는 구별이 어려워 삼국사의 정립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三國史記』의 本紀에서 阿且(차)城은 蓋鹵王 조에, 阿且(단)城은 責稽王 조에 나타나고 있다. 列傳 편인 溫達傳에서는 ‘且(차)’와 ‘且(단)’의 구별이 어렵다고 하겠다. 地理志에서는 위치를 알 수 없는 地名으로 阿且(단)城이 있다. 또한 高句麗 때의 단양군 영춘면은 ‘웃(乙)’의 뜻을 덧붙여서 乙阿且(且)縣으로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혼용은 近朝鮮에 이르러 太祖 이성계의 後名인 ‘且(단)’에 저촉된다고 하여 『輿地圖書』에서 乙阿朝縣으로 바꿨다. 따

라서 단양군 영춘면의 高句麗 때의 지명은 乙阿且(단)縣이 맞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 광진구 소재 사적 阿且山城이 삼국시대에 阿且(단)城이었다고 한다면, 近朝鮮에서는 阿朝城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阿且(且)城은 峨嵯山으로 轉義되었다. 음독으로써 그 이전에 阿且(차)城이었음을 증거한 것이다. 앞서 ‘且(차)’가 ‘嵯’로 바뀐 것은 ‘且(차)’와 ‘且(단)’의 혼동을 구별짓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峨且(차)山’으로만 改書할 경우에 太祖의 後名인 ‘且(단)’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嵯’로 확실하게 고쳐서 避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 광진구 소재 阿且(차)城과 단양군 영춘면 소재 乙阿且(단)城은 漢江上·下流의 상대적 지명개념이 아니다. 기실 百濟의 성곽은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의 성곽은 漢江·錦江·榮山江流域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漢江流域이다. 漢江流域에서 중간지역을 제외한 相距한 거리의 상류의 乙阿且城과 하류의 阿且(단)城 두 곳만을 대비시킨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乙阿且縣의 ‘且(단)’은 ‘谷’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城谷의 뜻이다. 단양군 영춘면의 乙阿且城의 지명은 南漢江을 두고 마주하여 山勢가 어우러져 城谷을 이룬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소재 사적 阿且山城의 지명은 이러한 城谷을 이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乙阿且城은 천험의 城谷을 이룬 南漢江上流에서만 웃(乙)의 개

념을 부여받은 것이다. 실제로 阿且(단)城이 있었다면 乙阿且城과 南漢江을 두고 마주하고 있었거나 그 지경의 아래 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서울 광진구 소재 사적 阿且山城 지경은 峨嵯山이 음독으로 방증하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의 阿且(차)城이 있었다.

지금까지 阿且(차)城은 阿且(단)城의 改書이거나 誤記라고 단정지어졌다. 改書로 본 李丙燾는 원래 阿且(단)城이었는데 近朝鮮의 太祖 이성계의 後名인 '묘(단)'에 저촉되므로 '묘(차)'로 바뀌어 阿且(차)城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三國史記』가 近朝鮮 이전인 高麗時代에 편찬된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三國史記』가 近朝鮮 때까지 改修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阿且(차)山과 峨嵯山의 두 표기가 전래되고 있음을 해명할 수 없다. 근래에 李道學도 단양군 영춘면의 高句麗 때의 지명인 '乙阿且縣'이 『輿地圖書』에서 太祖 이성계의 後名인 '묘(단)'에 저촉되어 '乙阿朝縣'으로 改書된 근거를 제시하여 阿且(단)城이 阿且(차)城으로 改名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견해는 漢江下流의 峨嵯山과 南漢江上流의 乙阿且縣에 두 개의 阿且(단)城이 각기 있었다는 데에 대하여 異論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漢江下流의 阿且(단)城에 대칭되는 南漢江上流의 乙阿且縣의 阿且(단)城을 '乙(웃) 阿且城'으로 상정한 것이다. 두 개의 阿且(단)城은 아래 阿且城과 웃 阿且城으로 짐짓 구별되는 것인데, 『三國史記』 또는 「廣開土大王陵碑」에서는 上·下의 지리적 개념으로 구별하지 않고 역사적 정황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阿且(단)城으로만 기재하였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避諱에 관계되어 阿且(단)城이 阿且(차)城으로 改書될 수 없다는 李道學의 견해는 타견이다. 그러나 氏는 漢江下流의 阿且(단)城이 阿朝城으로 改名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묘(단)'과 '묘(차)'의 板刻상의 誤刻이거나, 금석문에서 '묘(단)'과 '묘(차)'는 통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漢

江下流의 阿且(차)城은 阿且(단)城의 誤記이거나 '묘(단)'과 '묘(차)'의 혼용이 사례가 '묘(차)'로만 굳어져 阿且(차)城이 되었다는 옹색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阿且(차)城은 沃沮城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음독으로서도 '옥저성'이다. '묘(단)'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嵯'로 바뀔 것이 아니라 氏가 주장하는 것처럼 '朝'로 바뀌어 '阿朝城'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래 阿且과 웃 阿且을 하나의 地名인 '阿且(단)城'으로 인식한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금석문에서 '묘(단)'과 '묘(차)'가 혼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散見될 소지가 희박하므로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다. 「陵碑」에서는 두 번 쓰인 阿且(단)城과 那且(단)城 하여 '묘(단)'은 모두 세 개이다. 「陵碑」의 세 개의 '묘'은 특별한 書體로써 '亼'과 '一' 사이에 '/'의 빗선이 가미되고 있다. 확연한 글자의 획을 요구하는 암각문에서 '묘(단)'이 맞는다면 굳이 빗선(/)을 세 번씩이나 가미하여 번거로운 수고를 자청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정교하여야 할 「陵碑」의 암각문에 쓸데 없는 획이 가미되어 글자가 와전되거나 파손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사려한다면, 「陵碑」의 '묘'에 세 번이나 쓰인 빗선(/)은 書體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陵碑」의 '묘'은 篆字體로써 '묘(차)'인 것이다. 따라서 「陵碑」에서도 阿且(차)城이 암각되었다.

「陵碑」의 永樂六年(A.D. 396) 조에서 廣開土王이 百濟로부터 빼앗은 58城 중에 阿且城이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永樂六年 조의 58城은 「陵碑」가 廣開土王의 흔적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永樂六年 前後의 百濟征伐의 사실들을 일괄 기재한 것이다. 永樂六年 조의 서두에 '首攻取'가 뜻하는 바, 阿且城은 廣開土王이 百濟로부터 열번째 빼앗은 城이다.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廣開土王은 즉위 원년(A.D. 392)에 南으로 百濟를 쳐서 10城을 빼앗았다. 이때의 상황을 百濟本紀에서는 '高句麗王 談德(광개토왕)이 병사 4萬을 거느리고 와서 北邊을 쳐서 石峴 등 10餘城을 함락시켰다. 王(辰斯王)

高句麗의 南平壤은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北漢山郡이라고 하였다. 또한 高麗時代의 楊州라고 한다. 新羅本紀에서 왕위계승을 놓고 憲昌·梵文의父子가 反旗한 최후의 거점으로 北漢山州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平壤이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역시 高句麗의 南平壤은 楊州라고 하였다. 두 史書에서 高句麗의 南平壤은 高麗時代의 楊州로 비정되었고, 이는 지금의 漢江下流의 以北을 지칭하고 있다. 南平壤의 北界는 楊州 地境이 그러하였듯이 臨津江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 談德이 用兵이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漢水 以北의 여러 부락이 함락되었다.' 라고 적고 있다. 廣開土王의 百濟征伐의 첫 출정은 水軍作戰이었다. 高句麗와 百濟의 경계의 城들을 공략하였다면 굳이 水軍作戰은 필요치 않았다. 「陵碑」의 '渡阿利水遣刺迫城' 이 뜻하는 바, 廣開土王이 水軍은 漢江 北邊에 상륙하여 百濟의 漢城을 공격한 것이다. 百濟本紀에서 辰斯王이 나가 막지 못하였다는 것은 「陵碑」의 '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 과 상응한다. 따라서 百濟의 辰斯王은 廣開土王에게 漢水 以北의 10城과 볼모를 바치고 高句麗에 종속된 것이다. 阿且城까지 열 번째 열거한 城들 가운데는 漢水 以北에 있는 것이 확실한 關(關)彌城이 보이고 있다. 關彌城만이 이러한 항복 조건에 反旗하였고, 廣開土王은 이를 정벌한 것이다. 따라서 10城의 나열은 高句麗에서 近遠法의 순차에 따라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마지막 열 번째 기록된 阿且城은 漢江 北岸의 峨嗟山에 있었다. 「陵碑」의 守墓人烟戶의 구성에 있어서 阿且城은 '百殘(濟)南居韓' 의 앞에 기재되고 있으므로 百濟의 都城(漢城) 南쪽의 단양군 영춘면의 乙阿且縣에 있는 城으로 비정될 수 없다. 한강 北岸의 阿且城은 百濟의 漢城을 감시하는 都護府로써 漢江의 水路를 관장하였던 高句麗의 南平壤이 되고 말았다.

### 3. 漢江下流流域에서의 高句麗의 南平壤의 考察

高句麗의 南平壤은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北漢山郡이라고 하였다. 또한 高麗時代의 楊州라고 한다. 新羅本紀에서 왕위계승을 놓고 憲昌·梵文의父子가 反旗한 최후의 거점으로 北漢山州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平壤이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역시 高句麗의 南平壤은 楊州라고 하였다. 두 史書에서 高句麗의 南平壤은 高麗時代의 楊州로 비정되었고, 이는 지금의 漢江下流의 以北을 지칭하고 있다. 南平壤의 北界는 楊州 地境이 그러하였듯이 臨津江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高句麗의 南平壤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을 가지고 역사적 정황과 그에 따른 변천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廣開土王은 즉위 원년(A.D. 392)에 水軍作戰을 감행하여 百濟王으로부터 '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 의 항복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혼적비인 「陵碑」의 永樂六年(A.D. 396)에 일괄 기재되므로써 廣開土王에게 항복한 百濟王은 永樂六年의 재위에 있었던 阿莘王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阿莘王은 즉위와 더불어 關彌城(A.D. 393)·水谷城(A.D. 394)·淇水(A.D. 395)에서 줄기차게 高句麗에 대한 抗戰을 강행하였다. 永樂六年 다음의 2년 후에도 高句麗를 치려고 漢山 北柵까지 진군하였다가 회군한 사실이 있다. 이때의 漢山 北柵은 阿莘王이 淇水戰의 참패를 보복하기 위하여 靑木嶺까지 진군하였다가 '大星落營' 으로



회군하여 漢山城에서 集居한 사실로 보건데 황해도 載寧의 漢城의 北쪽에 있는 柵이다. 이와 같이 阿莘王은 永樂六年을 前後한 시점에서 泗水線(예성강)을 놓고 강렬한 高句麗 항쟁을 벌려 나갔다. 이러한 阿莘王이 都城인 漢城까지 高句麗軍이 들어오도록 방관할 이가 없으며, 抗戰을 포기하고 廣開土王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廣開土王에게 항복한 百濟의 王은 辰斯이다. 辰斯王은 漢水 以北의 10城과 볼모를 바쳤다. 10城 중에 하나인 阿且城은 「陵碑」의 「弟并大臣十人」의 볼모를 담보하여 漢江 北岸에서 百濟의 漢城을 감시한 것이다. 따라서 高句麗의 南平壤은 廣開土王에 의하여 처음으로 阿且城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南平壤은 百濟의 漢城의 동태를 파악하고 漢江水路를 이용하여 貢物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을 것이므로 관방체제라고 하기보다는 租借地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阿且城의 南平壤은 阿莘王의 反正으로 4개월만에 소멸되었다. 前王 辰斯는 狗原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그 行宮에서 죽었다. 죽은 사실을 10일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은 이유는 阿莘王의 反正을 암시하고 있다. 阿莘王은 즉위와 더불어 외척인 樂浪系의 眞武에게 兵權을 맡겼고 關彌城의 재탈환을 재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高句麗에 대한 정책전환은 阿且城에는 이미 高句麗의 南平壤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阿莘王은 볼모에 연연하여 高句麗의 침탈을 방관하고 있는 辰斯王을 眞氏系와 함께 시해하고 즉위하였다. 따라서 이때 反正의 명분이 되었던 阿且城의 高句麗의 南平壤은 괴멸된 것이다.

高句麗가 또다시 百濟의 漢城을 공격한 것은 廣開土王의 아들 長壽王에 의해서이다. 長壽王은 父王이 百濟를 臣民으로 삼았던 유휴정책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하여 아예 漢城百濟를 漢江下流에서 錦江流域으로 퇴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父王이 건설한 阿且城의 南平壤을 토멸한 百濟에 대하여, 응징 차원에서 蓋鹵王 또한 阿且城 아래서 참살하여 보

복하였다. 이러한 高句麗의 강경책은 漢江下流流域을 직접 경영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漢江 南의 漢城 일대의 夢村土城·二聖山城 등에서 高句麗人들이 集居한 흔적들은 長壽王에 의하여 재건된 제2의 南平壤이 소산이다. 이러한 漢城 일대의 南平壤을 보호하기 위한 관방체제가 峨嵯山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峨嵯山을 1차 방어선으로 하여 龍馬山·忘憂山の 제2차 방어선을 구축한 高句麗의 보루성들이다. 대체로 이러한 방어선들은 漢江 南의 漢城에서 한강을 두고 마주하여 漢江 北을 半圓으로 감싸고 있다. 지금까지도 발굴과정에 있는 두 개의 보루성의 유구는 방어 방향이 北쪽으로 쏘여 自國인 高句麗를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高句麗의 南平壤이 漢江下流 南·北의 漢城 일대에 한정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또한 高句麗의 대대적인 징벌에도 불구하고 百濟人들은 회귀하여 그들이 漢城이었던 高句麗의 南平壤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케 한다. 峨嵯山 능선상의 제3보루성에서 「舟牟及」이 압박된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舟牟及」은 세 개의 병영을 거느린 전진기지로서 선박을 관리하는 보루성이다. 『朝鮮寶物古蹟調查報告』에서 峨嵯山 능선상에 세 개의 보루가 있었다는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보루성들은 漢江 南의 漢城과 직접 교통할 수 있었으므로 阿且城을 경유할 필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阿且城은 통신보루로서 격하되었다. 제3보루성에서 高句麗의 제17관등에 해당하는 「大兄」이 압박된 토기가 채집된 사실에서도 이곳은 「舟牟及處」로써 峨嵯山의 전 지역의 관방을 총괄하였던 전진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句麗는 漢江下流流域을 통치하였다기보다는 南漢江上流에서부터 내려오는 物産을 平壤으로 수송하는 중간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방의 百濟人들의 압박에 놓인 漢城의 南平壤이 오랫동안 지탱한 것은 아니다. 高句麗는 長壽王 때에 宋·南齊·北魏 등에 40여 차례의 朝貢使를 보냈다. 中國列強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끈질긴 百濟人들의 회귀력은 이러한 南平壤을 와해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百濟本紀의 東城王 條가 주목된다. 東城王은 즉위와 더불어 高句麗 강경파인 樂浪系 眞老에게 兵權을 맡겼다. 또한 新羅와 혼인동맹을 맺어 高句麗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百濟의 雉壤城을 高句麗가 공격하였다. 百濟는 新羅의 구원을 받아 高句麗軍을 물리쳤다. 그런데 百濟의 雉壤城은 황해도 연백군 배천에 있다. 錦江流域까지 밀려간 百濟가 漢江流域을 넘어서서 웅진반도까지 진출한 것이다. 다음의 武寧王도 즉위 원년에 禮成江의 상류인 황해도 신계에 있는 高句麗의 水谷城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兩國의 本紀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부정할 수 없다. 百濟가 웅진반도의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정황은 漢江流域이 굳건한 디딤목이 되어야 가능하다. 陸路로 百濟를 지원하여야 하는 新羅에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東城王 때에 이미 漢江流域의 漢城의 高句麗 南平壤은 와해된 것이다. 필자는 東城王 23년(A.D. 501) 조의 '設柵於炭峴 以備新羅'의 '新羅

가 '高句麗'의 改作임을 논증한 바 있다. 東城王은 新羅와 혼인동맹을 맺어 高句麗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였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羅濟同盟은 新羅의 眞興王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炭峴의 木柵은 高句麗를 막은 것이다. 炭峴은 漢江下口에 가까운 高峯山城의 능선이다. 高峯山城은 高句麗의 安臧王이 야음을 이용하여 漢氏 美人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에서 漢江口를 뚫으려는 高句麗의 의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漢江下流의 漢城의 南平壤이 어느 시점에서 와해되었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東城王의 즉위가 高句麗 강경파인 樂浪系の 眞氏系에 의한 反正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제1차 阿且城의 南平壤을 토멸한 阿莘王의 反正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漢城의 高句麗 南平壤은 雉壤城 전투(A.D. 495)가 있기 이전에 百濟人의 압박에 의하여 와해되었다.

그러나 『日本書記』 欽明天皇 12년(A.D. 551) 조에서는 '百濟의 聖王이 新羅와 任那軍을 이끌고 高句麗를 정벌하여 漢城을 되찾았다. 또다시 진군하여 平壤을 쳤다. 모두 6郡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欽明天皇紀의 漢城과 平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시기에 新羅는 居柒夫에 의하여 단양 지경의 高句麗의 10城을 빼앗았다. 이는 「丹陽 新羅赤城碑」가 증거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欽



△ 북한이 주장하는 南平壤과 近都

明天皇 12년 조에서 百濟가 되찾은 漢城을 漢江下流에 국한하여 왔다. 이러한 견해는 그 이전의 百濟는 聖王 때까지 漢江下流流域으로 회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新羅가 단양 지경의 高句麗의 10城을 빼앗은 시점은 高句麗本紀에서는 그해(A.D. 551) 9월 이후라고 하였다. 百濟의 聖王이 二國軍을 이끌고 漢城과 平壤을 공략한 것은 欽明天皇 12년 조에 의하면 그 이전 3월에 있었다. 이러한 時差가 맞는다면, 百濟·新羅·任那軍은 먼저 단양 지경의 高句麗의 10城을 공략하여 漢江下流에 있었다고 하는 高句麗의 南平壤에 대한 포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百濟·新羅·任那軍은 단양 지경의 高句麗의 10城을 비켜서 그때까지도 漢江下流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高句麗의 南平壤인 漢城을 먼저 공격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三國(百濟·新羅·任那)이 敵地인 漢江下流의 高句麗 南平壤까지 깊숙히 北進한 것이고, 단양 지경의 高句麗의 10城은 三國의 후방인 南漢江上流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사태는 없었고 작전은 성공하였다. 이유는 이미 竹嶺 以北의 南漢江上流에서부터 漢江下流까지의 水系는 東城王 때를 기점으로 하여 百濟가 재탈환하여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欽明天皇 12년 조에서 百濟의 聖王이 三國軍을 이끌고 정벌한 漢城은 황해도 載寧의 (北)漢城을 가리킨다. 다시 진격한 平壤은 高句麗의 三京의 하나인 南平壤으로서 최근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황해도의 신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欽明天皇 12년 조의 '凡六郡之地'는 그 이전 帶方郡의 영역에 있었던 『三國志』 韓傳의 '辰韓八國' 과도 상응하는 지명개념이다. 欽明天皇 13년(A.D. 552) 조에서는 新羅의 眞興王이 百濟의 漢城을 빼앗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해(『三國史記』에서는 A.D. 553)에 百濟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新羅가 이로 인하여 漢城에 들어갔다. 지금의 新羅의 牛頭方·尼彌方이다.(지명은 모른다)' 新羅가 百濟로부터 빼앗은 것은 漢江下流의 漢城이다. 그 이전

百濟가 버린 漢城과 平壤은 옛 帶方故地를 가리키고 있다. 『日本書紀』의 찬자들은 統一新羅時代에도 잔존하고 있었던 帶方の 지명을 각기 음독되는 대로 牛頭方·尼彌方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지명의 표기가 불확실함을 부연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欽明天皇 13년 조에서 두 번 나타나는 漢城은 황해도 載寧의 (北)漢城과 漢江下流의 漢城을 구분짓지 않은 데에서 오는 혼동이다. 이때의 平壤은 高句麗의 三京의 하나인 南平壤으로써 高句麗 남진정책의 소산인 漢江下流의 南平壤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百濟의 聖王은 漢江下流의 漢城에서 北進하여 高句麗에게 빼앗겼던 帶方故地를 회복한 것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百濟는 新羅와 任那의 도움으로 載寧의 (北)漢城과 高句麗 三京의 하나인 南平壤(신원)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은 잠시였고, 2년 뒤 新羅의 眞興王은 南漢江을 따라 北進하여 漢江下流의 百濟의 漢城을 빼앗았다. 다급해진 百濟의 聖王은 자신의 王女를 眞興王의 小妃로 보내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漢江下口의 皆伯縣(今 高陽市)을 보전하였다.

따라서 이때 세운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는 漢江下流에서의 百濟와 新羅의 경계점으로서 그 界線은 高陽市 北漢山 능선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羅·濟의 공수동맹 관계를 파기하게 하였다. 오히려 新羅의 北進을 두려워하여 百濟와 高句麗가 연합하는 계기가 주어진다. 따라서 百濟의 聖王은 新羅 보복전에 나서기 이전에 되찾은 帶方故地를 다시 高句麗에게 할애하므로써 漢江下口의 배후를 안전하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漢江下流流域에서의 三國末期의 판도는 新羅의 黨項城(今 辛州山城)과 北界 33城을 百濟·高句麗가 연합하여 공격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㉔

다음호에는 下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8~19일 이틀동안 대전 유성호텔에서 「2001년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 1백명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의견을 발표케 했는데, 7개분과로 나누어 주제를 정하여 발표한 의견을 취합해 「지역문화의 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면서 지방문화원의 감독이나 예산지원도 문화부가 손을 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이번 토론회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문화는 말뿐이고 표를 의식하여 개발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문화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이런 식으로 기다기는 문화발전은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게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柳)

**문경** 에 다녀왔습니다. 눈썹인 KBS 왕건세트장도 봤습니다. 옛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길에 오르던, 바로 그 길로도 몇발자국 걸어 들어갔습니다. 폭설탓에 관광객도, 산새도, 선비도 보이지 않았습다. 황톳길은 눈이 쌓이고 녹기를 반복하다 빙판이 되었더군요.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내기 싫어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게 게을러지더군요.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라는 꼭지를 취재하기 위해 문경을 방문한 이날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위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뭐라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로하신 나이에 또 불구하고 이곳 저곳을 보여주며 설명을 아끼지 않으신 문경문화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밤에 자료를 뒤적여 아침에 다시 일러주던 고택재 향토사연구소장님, 이틀동안 운전을 해주신 이옥 과장님과 정현희 간사님, 다시한번 술잔잔 나누고 싶은 안태현 문경새재박물관 학예연구사님, 친절히 석탄박물관 소개를 해주신 조성보님, 그리고 인터뷰자료를 준비해 주신 문경시 문화예술평담담당자님과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창교 문화원장님·김학문 문경시장님. 고맙습니다.(旼)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꾸밈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전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